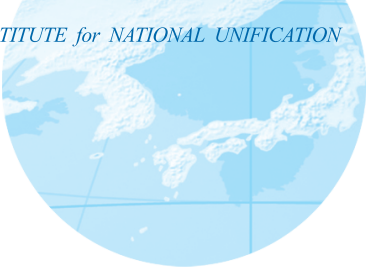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5호 (2012년 9·10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9 September 2012

❶ 주차_9.01-9.02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
❷ 주차_9.03-9.09	1. 대내 동향 1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21
❸ 주차_9.10-9.16	1. 대내 동향 24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2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33
❹ 주차_9.17-9.23	1. 대내 동향 3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40
	3. 대남 동향 44
❺ 주차_9.24-9.30	1. 대내 동향 4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5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57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호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10 October 2012

① 주차_10.01-10.07	1. 대내 동향 6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66
	3. 대남 동향 69
② 주차_10.08-10.14	1. 대내 동향 7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0
	3. 대남 동향 8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10.15-10.21	1. 대내 동향 9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9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01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10.22-10.28	1. 대내 동향 10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1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1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10.29-10.31	1. 대내 동향 12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3
	3. 대남 동향 124
■ 9월 일지 / 126	
■ 10월 일지 / 128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9.01-9.02

9월

1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김정은, 경제시찰 재개…식당 방문(종합)(9/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창전거리에서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을 돌아봤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지은 해맞이식당 내 슈퍼마켓, 대중식사실, 개별식사실, 커피점, 육류 및 수산물 상점을 둘러보고 시공정형, 상품진열 상태, 봉사(서비스) 계획, 요리의 가짓수와 질 등을 점검함.
 - 그는 슈퍼마켓을 방문해 “슈퍼마켓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면 식료품 가격을 바로 정하고 영업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간이매대에서는 ‘강냉이튀기(옥수수 빵튀기)’의 냄새가 구수하다며 맛을 보기도 했고 커피점에서는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으며 해맞이식당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100점, 만점’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이번엔 ‘경제시찰’ 쟁결음(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제1위원장이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을 돌아보며 “대동강타일공장의 일꾼과 종업원들이 창전거리를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 각종 타일과 기와를 생산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해 건재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고 치하함.
 - 김 제1위원장의 공장 방문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희 노동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김양건 당비서(대남 담당), 김영일 당비서(국제 담당),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한광복 내각 부총리,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1부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리룡하 당 1부부장, 박태성(신원 미상), 김병호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장수길 당 부부장, 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또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우리의 경찰에 해당) 여성취주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함.

-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김 제1위원장은 “취주악 연주와 함께 여성취주악단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인 울동을 배합한 것이 좋다”고 평가하고 “사람들 속에서 여성취주악단에 대한 인기가 높은 만큼 울동형상을 더 다양하면서도 볼 맛이 있게 창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 부부의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 한광복, 한광상, 김경옥, 리룡하,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 등이 수행함.

● 北 리설주, 이번엔 바지 입고 남편 동행(9/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일 오후 5시께 김 제1위원장의 평양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하며 김 제1위원장과 리설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내보냄.
- 이 공장 방문 사진들을 보면 검은색 ‘일자바지’를 입고 앞이 트인 흰색 구두를 신은 리설주가 남편과 함께 공장 구내를 활보했으며 일부 사진에서는 리설주가 팔을 휘저으며 남편과 나란히 걸어감.

김정은동향

- 9/1, 김정은 黨 제1비서, 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러진 전자도서관 시찰(9.1,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한광복, 박태성, 김병호, 마원춘 동행
- 9/1,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 시찰(9.1,중통)
 - 최룡해,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백세봉, 한광상, 김경옥, 박태성, 김병호 동행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9.2,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 한광복, 한광상, 김경옥, 리룡하, 박태성, 김병호, 장수길, 마원춘 등 동행
- 9/2,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연주회지도(9.2,중통·중·평방)
 -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수행 인물중 장수길 제외
 - 만수대창작사 일꾼 - 창작가 등에게 ‘김정은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 모임, 9.1 김기남 등 참가자 진행(9.2,중방)

나. 사회·문화

● 백두산 화산에 부쩍 관심쏠는 北(9/2, 연합뉴스)

- 한 대북소식통이 2일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국의 대학, 비정부기구와 백두산 분화와 관련된 탐사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과 영국의 전문가들은 2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 지진계를 설치한 뒤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움직임과 화산 분화의 전조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대외 관계

● 말聯-北, 협력 확대·강화 합의(9/1, 신화통신)

-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유대 관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말레이시아 외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1일 보도함.
-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전날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모하메드 라드지 압둘 라흐만 사무국장이 북한 정부 측과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란서 ‘환대’받는 北 김영남(9/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영남 위원장이 이란 수뇌부들과 면담을 한 소식,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소식, 김 위원장이 이란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한 소식 등 관련 보도를 7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영남은 1일 테헤란의 대통령궁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모하메드 레자 라히미 제1부통령 등과 회담을 했으며 국회청사에서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을 만남.

9.03-9.09

9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軍군악단 연주회 관람(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조선인민군 군악단 연주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이 지도에서 “우리 군대의 정신력과 기상이 맥박치는 군악을 연주할 수 있게 연주기법과 형식을 우리 식으로 더욱 발전시키며 복장도 더 잘해주어야 한다”고 지시함.
 - 이어 “조선인민군가’를 들으면 격동되는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의 날이 오면 인민군군악단의 혁명군악을 높이 울리며 진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北, 25일 최고인민회의 개최…개혁조치 주목(종합)(9/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3일 결정을 채택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밝힘.
 - 또한 공시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등록은 9월 23일과 24일에 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부부, 이번엔 평양 가정집 방문(종합)(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평양 중심가에 있는 일반 가정집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과 리설주는 평양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새로 입주한 평양기계대학 교원, 노동자, 신혼부부 가정 등을 찾아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가정집 방문에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당과 국가의 모든 시책이 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라고 강조했다고 전함.

● 北김정은, 준공 앞둔 주민 편의시설 점검(9/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준공을 앞둔 주민 편의시설인 ‘평양민속공원’과 ‘통일거리 운동센터’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8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양민속공원 내 역사종합교양구역, 역사유적전시구역, 현대구역, 민속촌, 민속놀이구역, 백두산·금강산공원구역 등을 돌아보고 “참관자에게 우리 민족이 이룩한 민속전통과 미풍양속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고 그것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민속공원에 세계구역도 만들어 북한 주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공원 건설에 참가한 제630대연합부대(11군단)에 ‘감사’를 전달함.

● 北김정은, ‘정권창건’ 맞아 김일성·김정일 참배(종합)(9/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권수립(1948.9.9) 64주년을 맞아 9일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금수산태양궁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돼 있으며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각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당군양군사위와 국방위, 최고사령부 관계자들이 동행함.
- 김 제1위원장은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한 가운데 위병대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은 뒤 김 주석 시신이 안치된 홀을 둘러보고 경의를 표시했으며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종합공연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동향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조선인민군 군악대 연주회 지도(9.3, 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현영철(총참모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박재경·김영철(대장들), 박정천(중장), 황병서(黨 부부장) 등 동행
- 9/3, 김정은 黨 제1비서, 황해북도 양로원과 육아원·애육원들에 ‘식료품과 의약품’을 선물로 전달(9.3.중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9.5 문선명(통일교 총재, 9.3 사망) 유가족들에게 ‘애도 표명’ 弔電(9.5, 중통·중방·평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창전거리 살림집들에 입사한 근로자들 가정방문(9.5, 중통·중방·평방)
- 9/5,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농업종합대학 박사 김우범과 봉화화학공장 지배인 신재완에게 80·90돌 ‘생일상’ 각각 전달(9.5, 중통)
- 9/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전승기념관’ 건설 명령(전승 60돌인 ‘13.7.27까지 완료’)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결기모임, 9.5 최룡해·김정각 등 참가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 앞에서 진행(9.5, 중통)
- 9/7, 김정은 黨 제1비서, 9.7故 문선명(통일교 총재, 9.3 사망) 유가족에게 화환 전달(9.7, 중통·중·평방)
 - 화환을 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과 김양건(黨 비서)이 유가족인 문형진(문선명 7男·장례위원장, 세계평화연합 세계회장)에게 전달.
 - 고인의 유가족과 장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9.7) 개성을 통과, 평양에 도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 국가와 우당·종교단체·관계기관 일꾼 등, 9.7 세계평화센터 弔電 방문(9.7, 중통·중·평방)
 - 문형진과 장의위원회 관계자, 평양에 있는 유가족들 참가
 - 문선명에게 ‘조국통일상’(최고인민회의 ‘정령 제2664호’, 9.6 발표) 수여, 9.7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서기장) 및 고인의 유가족 등 참가하 만수대의사당에서 문형진에게 전달(9.7, 중통·중·평방)
- 9/8,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민속공원 시찰 및 공원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9.8, 중통·중·평방)
 - 최룡해, 장성택, 김정각, 최태복, 박도춘, 김영일, 김양건, 김평해, 문경덕, 김경옥, 박태성, 황병서, 김병호, 마원춘 등 동행
 -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통일거리운동센터(김정은 직접 발기·구상, 연건축면적 : 1만3,749㎡) 현지지도(9.8, 중통·중·평방)
 - 최룡해, 김정각, 김경옥,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등 동행
- 9/9, 김정은 黨 제1비서, 9.9 0시 黨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사령부 작전지휘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 父子에게 경의표시(9.9, 중통)
 - 최룡해, 현영철, 장성택, 김정각, 리용무,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등 참가
- 9/9, 김정은 黨 제1비서, 정권 창건 64돌 즈음 조선인민군협주단 종합공연 관람(9.9, 중통)
 -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장성택, 김기남, 박도춘, 김정각, 양형섭, 현철해, 김원홍, 김영일, 김양건, 문경덕, 노두철 등 참석
 - 정권 창건 64돌 경축연회, 9.9 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 참가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9.9, 중통)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총 ‘결정’(9.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9월25일 평양에서 소집 및 9월23·24일 대의원등록 공시(9.5, 중통·중·평방)
- 北, 정권 수립일(9.9) 6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4.25문화회관) 진행(9.8, 중통·중·평방)
 - 김영남, 최영림(내각총리/보고),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문경덕(평양시당책/사회),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김영대, 류미영 등 참가

나. 경제

● 北, 기업·정부 7대3 수익분배제 도입(9/4, 아사히신문)

- 북한이 오는 10월부터 국영기업·상점의 수익 중 30%만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70%를 남겨두는 내용의 경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4일 중국 선양(瀋陽)발로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북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가 기업에 필요 경비나 임금을 다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익의 70%를 기업·상점에 남기고, 30%만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함.

● 北, 나선서 농업시범구 560정보 운영(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중국과 공동개발 중인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560여 정보(약 555만 m²)의 고효율 농업시범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나선경제무역지대에서 고효율 농업시범구가 운영되고 있다”며 “시범구의 경지 면적은 560여 정보”라고 보도함.
- 또한 “조중(북중) 두 나라 농업기술자들과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작황이 매우 좋다”며 “온실에서 지난 6월 말 파종한 토마토와 오기, 가지 등의 남새(채소)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고 덧붙임.

● 北, 양각도호텔 골프장 없애고 새 시설 건설중(9/7,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 양각도국제호텔 앞에 만든 골프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 ‘노스코리안 이코노미워치(North Korean Economy Watch)’가 구글어스의 새로운 평양지역 고해상도 위성사진(2012.6.21 촬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동강 양각도에 있던 양각도 국제호텔 골프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됨.
- 이 사이트는 사진 설명에서 “이 자리에 현재 새로운 종합복지센터(new health complex)가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함.

기타 (대내 경제)

- '나진항 ↔ 원정리間 도로'(총연장 50여km, 평균 넓이 9m·최고 16m) 개건 및 9.9 개통식 예고(9.4, 중통)

다. 사회·문화

● 北의 자전거 '예찬론'...“건강·환경문제 해결”(9/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3일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더불어 더욱 친숙해지는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자전거 타기가 널리 장려되고 있다”며 “자전거는 운동과 건강에도 좋고, 교통 및 에네르기(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이롭다는 것이 누구나 꼽는 우점(장점)”이라고 소개함.

● 北, 대학생 대상 TV 채널 편성(9/5, 조선중앙TV)

- 북한은 '교육절'을 맞아 5일부터 기존의 교육문화TV 채널을 평양시내 대학생 대상으로 한 룡남산TV 채널로 전환해 방송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전함.
- TV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35돌이 되는 9월 5일 오늘부터 교육문화텔레비전방송을 수도(평양)의 대학생들을 위한 룡남산텔레비전방송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방송에서는 대학생들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인재로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편집물을 기본으로 방영하게 된다”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태풍 피해 복구노력 집중 보도(9/7, 노동신문)

- 북한이 지난달 말 전역을 휩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7일 전함.
- 신문은 7일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비철금속 생산기지로 유명한 함경남도 검덕지구 등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으며, “태풍 15호에 의해 검덕지구에서 커다란 피해가 났다”고 전함.
-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피해 현장에 군인들을 보내는 등 복구 활동이 필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김정은 제1위원

장의 명령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민군 부대 및 당 위원회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함.

● 北도 녹색산업 박차…“경제강국 건설에 중요”(9/9,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 최신호(7월30일 발행)는 ‘현시기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폐기물을 재생해 생산에 널리 이용함으로써 많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게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논문은 공장, 기업소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원료, 연료, 자재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며 폐지, 폐강철의 경제적·환경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中, 나진항~원정리 도로 이달 개통식(9/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통로로 떠오른 북한 나진항과 원정리 사이의 도로가 이달 정식으로 개통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4일 “조중(북중) 두나라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 대상의 하나인 나진항~원정리 도로가 개건됐다”며 “개통식이 9월 경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원정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이며, 이 도로의 총 길이는 50여 km이고 너비는 평균 9m(최고 16m)라고 전함.

- **北, ‘중시양그룹 北투자 족박사건’에 이례적 반박(9/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합영투자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과 분쟁과정을 파헤쳐보면 서양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이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집단에 더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고 밝힘.

- **北회령~中싼허 국경다리 보수 완료(9/5,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와 중국 룡징(龍井)시 싰허(三合)를 잇는 국경 다리가 전면 보수돼 지난달 말 재개통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신문망을 인용해 5일 보도함.
 - 룡징시는 2009년 12월 회령시와 다리를 전면 보수하거나 새 다리를 놓는데 합의했지만, 공사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보수작업은 올해 2월 시작되었으며, 공사비는 중국 측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짐.

● **美민간인 20여명 지난주 방북..산업시설 등 시찰(9/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의 기업대표 등 민간인 20여명을 초청, 산업시설을 비롯해 대학, 박물관, 협동농장 등을 돌아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미 민간연구소 태평양국제정책협의회(PCIP)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럴드 D. 그린 대표를 비롯해 지방정부 및 기업 대표와 투자자 등 23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힘.

● **北 “日 납치문제 의제수용 주장은 허튼소리”(9/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본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며 공식 부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일본인 유골문제로 열리게 되는 조일 정부 간 본 회담과 관련한 쌍방의 입장이 통보되고 본회담의 의제와 급수, 장소, 시기 등 실무적인 문제가 논의됐으며 앞으로 외교적 경로를 통해 계속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일본 정부와 정계, 보도계(언론)가 본회담 의제에 납치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느니, 우리가 일본인 유골문제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있다느니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허튼소리”라고 일축함.
- 이어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는 이런 여론 기만행위는 일본 측이 일본인 유골문제를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질게 해줄 뿐”이라면서 “일본이 계속 불순한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조일 정부 간 대화가 이어지는 데 부정적인 후과(영향)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쿠바, 평양서 2년 만에 군사회담(9/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쿠바의 군사대표단이 6일 평양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회담에는 북한 운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군 장성 등이, 쿠바에서는 호아킨 키타스 솔라 혁명무력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주북 쿠바대사관 무관 등이 참석함.

-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의사를 표명했으며 호상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北서 주문 생산 유럽 의류업체 늘어(9/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의 유명 의류업체들이 값싼 노동력과 세련된 제작기술을 가진 북한에 주문 생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네덜란드의 대북투자 전문 자문회사인 GPI컨설턴트사의 폴 치아 대표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독일의 게리 베버(Gerry Weber)와 네덜란드의 C&A사 등 다양한 의류업체들이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 주문생산을 해 오고 있다고 밝힘.
- **北, 황금평 해외마케팅 본격화(종합)(9/7,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공동 개발 중인 황금평 경제특구에 대한 본격적인 해외마케팅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북한은 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8회 지린·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의 ‘조선(북한)의 날 및 중·조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에서 황금평의 개발계획과 투자기업을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소개하며 투자 유치에 주력함.
 - 북중이 공동 설립한 황금평·위화도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장즈첸(張芝遷) 부주임은 이날 행사에서 “전체 면적이 14.4km²에 이르는 황금평은 산업, 문화, 서비스의 ‘3대 기능’과 복장가공, 현대식농업, 전자정보, 문화, 상업·무역서비스의 ‘5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中, 경제특구 세금감면·비자면제 협상 중(9/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이 황금평과 나선 경제특구에서의 세금 감면과 비자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전날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의 북중 무역투자프로젝트상담회 행사를 전하면서 이런 정부당국간 협의내용도 소개함.

- **北, 日공안위원장 ‘고노 담화 수정’ 주장 비난(9/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일본 내각의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 겸 공안위원장이 ‘고노 담화’ 수정 주장에 대해 “무도한 술책”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논평에서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여성들의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하는 야만적인 처사이며 성노예 문제를 어떻게든 덮어버리려는 저열한 행위”라고 맹비난함.
 - 논평은 “지금껏 표면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고노 담화의 계승이라는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전면 부정하려는 망동”이라며 “과거 죄악을 청산할 의지가 없는 일본은 언제 가도 역사와 인류 앞에 파렴치한 나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

- **日, 10일 국장급 교섭 타진..北 불응(9/9, 교도통신)**
 - 일본이 북한에 국장급 교섭을 서둘러 열자고 타진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에 ‘9월초’나 10일에 국장급 교섭을 열자고 제시했으나 북한은 지난 7일까지 일본측의 제안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일정 조정은 난항을 겪고 있음.

- **푸틴, ‘정권수립일’ 맞은 北김정은에 축전(9/9,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일 ‘정권수립’ 64주년을 맞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국경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4돌을 즈음해 축하를 드린다”며 “러시아와 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친선과 존중의 공고한 전통에 기초해 성과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9.4 불룩불가담(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및 이란 공식친선방문 후 귀국(9.4,중통·중방)
- 北 외무성 비망록(8.31), 9.7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2-680호’로 배포(9.9,중방)
- 비망록 :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 포기는 핵문제 해결의 선결조건, ‘미국의 실지행동에는 화답할 것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핵억제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언급

나. 6자회담(북핵)

● 임성남 방중..“북핵 대처방안 협의”(9/5, 연합뉴스)

-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관한 한중간 협의를 위해 5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출국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임 본부장은 출국 직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중간 인식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국제원자력기구 정신 못차려” 맹비난(9/5, 조선중앙통신)

-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북한이 발끈하며 IAEA를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통신은 5일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해 “우리의 핵 활동에 개입할 자격을 상실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지금까지 다른 핵무기 보유국의 핵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이 없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핵 계획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공정성을 떠난 부당한 처사”라고 말함.
- 또한 “우리의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돼 있던 시기의 낡은 기준으로 오늘의 현실을 재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계속되는 적대시 정책에 대처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에게 비핵국가를 위주로 상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식의 기준이 따로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9.5)】 미국과 IAEA의 ‘北 경수로 건설’ 언급 (우라늄농축 활동에 우려, 핵사찰) 관련 ‘北 핵활동에 개입할 자격을 상실한 IAEA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난 (9.5.중통·중방)
-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처해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에게 비핵국가들을 위주로 상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식의 기준이 따로 있음.

3 대남 동향

- **北 김정은, 문선명 총재 별세에 조전(종합2보)(9/5,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별세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조전에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서 거저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혔으며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였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문선명 총재에 조국통일상 수여(종합)(9/7,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3일 별세한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를 보냄.
 - 조선중앙TV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노선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문선명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원수께서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이날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보도함.

- **정부, 대북 수해지원 공식 제의..北 침묵(종합2보)(9/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지원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대북 통지문에서 ‘7일 또는 편리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측은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음.

● 北 “美, 한국 주둔하려면 전면전 각오해야”(9/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주한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미국이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면 우리의 전면전쟁 맛을 한 번 볼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위협함.
-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67년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으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최대 표현”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조선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힘.

● 문형진 귀환..김정은 직접 조문 안해(종합)(9/8, 연합뉴스)

- 지난 3일 별세한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7남이자 장례위원장인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이 8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파주의 도라산 남북 출입국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박 사장은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남북 교류 협력, 수해 지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북한에서 평양 세계평화센터에 분향소를 차리고 조문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밝힘.

9.10-9.16

9월

3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김정일애국주의는 부강조국 건설지침(9/10, 조선신보)

- ‘9·9 국경절의 애국주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7월26일 노동당 책임일꾼과 한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언급하고 ‘김정일 애국주의’의 지향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라고 조선신보가 10일 전함.
- 또한 “경제사업을 맡아보는 국가행정기관 일꾼들은 실천 경험과 결부해 노작의 진수를 체득하고 있다”며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는 사회주의이며 따라서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애국주의는 다름 아닌 사회주의애국주의로 된다는 논리”라고 밝힘.
- “최고영도자의 관점은 장군님(김정일)께서 산 모범을 보여주신 사회주의 애국주의가 전체 인민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어나갈 때 조선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경축하는 열병식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사회주의애국주의의 발현’이라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건국절’ 조촐히 치러(9/10,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권 수립일’을 조촐히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간부들에게 “9·9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수반을 모신 날”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제1위원장이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군 협주단의 종합공연을 관람함.

- **北총리, 함남 검덕지구 찾아 수해복구 독려(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최 총리는 검덕지구의 피해지역 곳곳을 찾아 복구 상황과 주민의 생활 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독려하는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성(省), 중앙기관 등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수해 때 헬기로 中근로자 구조 지시(9/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 광산에서 일하다 수해로 생사 위기에 처한 중국인 근로자들을 헬기를 보내 구출했다고 소개함.
 - 통신은 ‘국제주의적 의리와 인간 사랑의 숭고한 정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함경남도 장진군의 한 광산에서 중국인 근로자 6명이 구출되는 상황을 상세히 전함.

김정은동향

- 9/13,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성을 지닌 김명복(평남정보기술교류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9.13,중방)

나. 사회·문화

- **北,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생중계(9/11,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북한 조선중앙TV가 이달 중순부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경기를 매주 한 차례씩 생중계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RFA와 VOA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 7일 보도 등을 인용해 중앙TV가 지난달 분데스리가와 경기 중계 계약을 맺었고, 녹화 방송되는 한 경기를 포함해 매주 두 경기를 중계할 것이라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9월 말까지 연장(9/12, 연합뉴스)

-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일정이 이달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해 아리랑 공연이 9월27일까지 연장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였으며, 애초 9월9일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20일가량 연장된 셈임.

● 北매체, 中 현지발음 대신 한자 독음 표기(9/13, 연합뉴스)

-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지명과 인명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북한 매체들이 이달 들어 다시 우리식 한자 독음을 쓰기 시작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북한 주요매체들의 최근 보도내용을 확인한 결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매체들이 이달 초부터 일제히 중국 국가주석 이름을 '후진타오(胡錦濤)' 대신 '호금도'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김정은 시대' 北엔 놀이공원 개발 붐(9/13,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평양뿐 아니라 각 지방에도 놀이공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함.
- 신문은 "올해 7월 준공된 룡라인민유원지가 수많은 이용자로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평양에서 2010년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이 개업했고, 현재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희장, 문수물놀이장을 전면 개건·현대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北 "수해로 300명 사망·이재민 29만명"(9/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여름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9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밝힘.
- 통신은 '종합된 자료'를 근거로 지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수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300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부상 또는 실종됐으며 살림집(주택) 8만7천280여 가구의 파괴·침수, 이재민 29만8천50여 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함.

● 北 5세 미만 사망률, 세계 69위(9/14, 연합뉴스)

- 2011년 현재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가 1천 명당 33명이 사망해 세계에서 69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함.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990년 1천명당 45명에서 2000년에 58명으로 늘었다가 2011년에 다시 33명으로 줄었으며, 2011년 5세 미만 남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1천명당 35명, 여자 어린이의 사망률은 32명이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룡남산TV 방송'(9.5일부터 개시), 대학생들에게 인기 자랑(9.12,중통)
- '국가산업미술전시회(4.10일 개막) 폐막식, 9.12 리무영(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국가산업미술중심에서 진행(9.12,중통)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中에 청진항 개방...3·4호 부두 30년간 임대(9/10, 연변일보)**
 - 북한이 나진항에 이어 청진항을 중국에 개방해 중국의 동해 뱃길 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연변일보가 10일 전함.
 -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소재 민영기업인 연변하이화그룹(延邊海華集團)은 지난 1일 평양에서 북한항만총회사와 정식 계약서를 체결하고 청진항 해운항만합작경영회사를 공동 설립했으며, 북·중은 이번 계약에서 연간 물동량 처리능력이 700만t인 청진항 3·4호 부두를 30년 간 공동 관리·이용하기로 합의함.

- **北, 적십자 국제회의서 수해 상황 집중 설명(9/1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 회의에서 올해 수해 상황을 집중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유증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인천공항에서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 만나 “북한은 (최근 열린) 동아시아 (지역 적십자) 회의에서 다른 사업은 얘기하지 않고, 이번 피해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며 “176명 사망, 22만명 이재민 발생, 가옥 파괴 등을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전함.

- **中자선기금, 北서 백내장 수술 지원(9/10, 조선중앙통신)**
 - 중국 홍콩의 자선기금이 북한에서 백내장 환자의 수술을 지원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함.
 - 통신은 “중국홍콩여평년자선기금회는 중국 내에서 진행하여온 평년광명행동을 조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며 “기금회는 지금까지 평년광명행동을 통해 중국 각지의 수 십만 명의 백내장 환자를 무상으로 치료해 광명을 안겨주었으며 재해 및 빈민구제활동과 교육, 과학기술 보급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강하국 보건성 부상은 개막식에서 “평년광명행동을 통해 많은 환자가 병을 고치게 될 것”이라며 “기금회의 백내장 무상치료활동은 조중 두 나

라 보건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함.

● **캐나다·아일랜드, 北에 긴급 식량지원(9/11,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와 아일랜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총 325만 달러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300만 달러, 아일랜드는 20만 유로(25만5천 달러)를 각각 WFP의 대북 식량 구호 사업에 지원했고 WFP는 아일랜드의 지원금으로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3만3천 명에게 1개월 동안 영양 지원을 할 계획임.

● **WHO, 北 수해지역에 전염병 센터 설치(9/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올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설사, 급성 피부 질환, 급성 호흡기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WHO는 이런 현상을 우려해 총 31만 달러를 북한 수해복구 사업에 배당하고 가장 심각한 수해를 입은 황해도에 ‘전염병 센터’를 설치했다고 전함.
- 전염병 센터는 긴급 의료 세트와 수인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실험 도구를 갖추고 수인성 질병과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는 한편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中연변에 ‘평양 친선도서관’ 개관(9/11, 연합뉴스)**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북한의 각종 도서 5천여권을 갖춘 ‘중국 연변·북한 평양 친선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또한, 도서관은 연길시 연변도서관 내에 마련됐으며 최근 연변주 정부와 북한출판물교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갖고 공동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힘.

● **北 금강산사업 주도 회사, 北中 경협에 눈돌려(9/12, 연합뉴스)**

-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백호무역

총회사가 최근 나선경제무역지대(나선특구) 등에서 중국기업과 대규모 합작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연합뉴스가 12일 밝혔다.

- 대북 소식통은 12일 “백호무역이 최근 나선특구를 비롯해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 행정특구 등에서 중국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세워 각종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나선백호무역회사’와 중국기업이 합작해 대형 국제무역센터 등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나선백호무역회사’가 바로 백호무역총회사라고 설명함.

● **中 샤먼서 황금평·나진 투자설명회 개최(9/12, 하이시천바오(海西晨報))**

-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도 북한의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렸다고 하이시천바오(海西晨報)가 1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샤먼에서 열린 제16차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간인 지난 9일 오후 북한 투자설명회가 별도로 개최됐다고 보도함.

● **유엔 “北, 수해지원 추가 요청 없어”(9/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이달 12일 현재 유엔에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 복구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평양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RCO)을 인용해 14일 전함.

● **中서 5년 체류 30대 탈북여성 강제 송환(9/14, 인민망(人民網))**

- 중국에서 5년여 간 체류한 30대 탈북여성이 최근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이 14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후베이성 어저우(鄂州)시 공안과 출입국관리 당국은 불법 입국·체류 혐의로 검거된 북한인 A(30·여) 씨를 지난 7일 지린성 연변을 거쳐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밝힘.

● **北, 中 곳곳서 투자 유치 ‘쟁걸음’(9/14, 연합뉴스)**

-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시키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

하기로 합의한 이후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지난 7일에는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제8회 지린·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서 ‘북·중 무역투자프로젝트 상담회’를 열고 나선·황금평 경제특구의 개발 현황과 투자 우대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음.

● 국제적십자, 北에 29만달러 추가 지원(9/15,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태풍 불라벤으로 피해를 본 북한 주민 1만1천600명을 지원하기 위해 29만 달러를 긴급 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北 황금평경제특구 관리청사 착공식(9/1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황금평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의 청사 착공식이 15일 현지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날 착공식에는 북한 측에서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홍길남 부위원장장과 평안북도 및 신의주시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선 랴오닝(遼寧)성 부성장 등이 참석
- 참석자들은 연설에서 “(북·중) 쌍방이 황금평 경제구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 것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두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9.12), 美 국무장관의 對北발언(비핵화없는 개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관련 ‘무기를 놓고 굴복하라는 것과 같은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 (9.9.중통/대조선 무장해제론, 체체전 복론의 발로)
- 일본의 ‘성노예 부정(‘노다’ 수상 등)과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은 “과거범죄의 책임을 모면하고 배상의무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이라며 ‘과거청산’ 촉구(9.13.중통·노동신문·평방/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은 자멸행위)
- 北-中 청년친선연환모임, 9.13 김철혁(청년동맹 부위원장) 및 중국 청년친선대표단 등 참가자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9.13.중통·중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9.13 중국 청년친선 대표단과 담화(9.13.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핵시설 안전관리법’ 제정(9/13,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제기해온 핵시설 관리에 관한 법안을 지난해 제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13일 확인함.
- 이 소식통이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방사성 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환경방사능 감시 등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고 전함.
- 특히 이 법안은 북한이 핵시설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 안정성 분석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며, 핵사고나 핵폭발로 방사성 오염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각 등의 기관이 특별감시조치를 꾸리고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을 검사하는 등 비상대책을 수립할 것도 명시했다고 보도함.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장, 9.7 모스크바 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 조약의 생활력 보장’ 주제로 연설(9.12,중통)
-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장, 9.7 ‘2012년 9월 모스크바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 연설에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 실행 보다는 평등하고 비례적인 핵무기축감 및 철폐조치 강구” 주장(9.13,중통)

3 대남 동향

- **北, 수해지원 수용..“품목·수량 알려달라”(종합)(9/10,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10일 통보해 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수해 지원을 받겠다면서 지원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함.
 -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우리 대한적십자가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수해지원 불발..北 “그런지원 필요없다”(종합2보)(9/12,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가 어제 오후 북측에 밀가루 등의 지원 품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북측이 오늘 오후 ‘그런 지원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함.
 - 정부는 전날 대북 통지문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긴급 수해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밀가루 1만t과 라면 300만개, 의약품·기타 물품 등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보내고자 한다”고 지원 품목과 수량을 북측에 제시했으나, 북측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지원 품목과 수량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힘.

- **北, 개성공단기업에 ‘징벌적’ 벌금규정 통보(9/1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회계조작에 대해 징벌적 벌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통일부는 북측이 8월 초 ‘개성공단 세금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개정안에는 입주 기업이 회계조작을 했을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

- **北어선 NLL 침범 때 북한군 해안포 개방(9/15, 연합뉴스)**
 - 북한 어선이 지난 12일 연평도 서북방 NLL(북방한계선)을 두 차례 침범했을 때 북한군이 인근 해안포의 포구(砲口)를 개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소식통은 15일 “북한 어선의 NLL 월선 때 북한군 경비정이 기동하고 해안포도 개방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이 우리의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기타 (대남)

- 軍 ‘국방개혁기본계획 12-30’ 확정 관련 ‘구조개편의 간판 밑에 軍 구조를 공격형으로 뜯어고치고 무력증강을 본격적으로 다그침으로써 북침전쟁도발태세를 전면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각본’이라고 비난(9.11,중통·노동신문·평방/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
- ‘UFG훈련’ 관련 ‘나라의 통일과 조선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최악의 핵전쟁연습으로 도전해 나섰다고 왜곡하며 재차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9.11,중통)
- 【北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 기자회견(9.12)】 남측의 대북수해지원 관련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주고 우리(北)를 또다시 심히 모독했으며 처음부터 진심으로 지원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비난(9.12,중통·중방)
- 쌀이나 시멘트, 복구용 장비는 다들 곳에 전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절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쫓겨왔으며 우리는 애당초 큰물피해와 관련해 괴뢰당국에 그 어떤 것도 기대한 것이 없지만 이번에 더욱 환멸을 느꼈음.
-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진성있는 태도변화, 핵개발과 무력도발 등) 관련 南北경제협력에 중단된 것은 ‘역적패당의 대결정책과 그 산물인 ‘5.24조치’ 때문’이라며 ‘철회’ 촉구(9.12,중통·노동신문/북남관계 파괴자들의 뻔뻔스러운 말장난)
- 우리군의 연평도·대청도 수역 사격훈련(9.10~14) 관련 ‘北의 최후결전은 도발자들에게 철추를 안기고 민족의 세기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再次 위협(9.12,중통·노동신문/최후의 결산만이 남아있다)
- 北 인권의 달 선포식(9.3/국회헌정기념관) 관련 ‘남북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전쟁위험까지 몰아오는 극악한 민족반역행위’라고 비난(9.12,중통·노동신문/모략소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
- 우리 국방부의 ‘국방정책기본계획’을 “북침전쟁계획”이라고 왜곡 비난 및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즉시적 대응타격’ 위협 강조(9.13,중통·민주조선)
- 국군 해병대의 연평도 부근 사격훈련 비난 보도(9.13,중통·중방)

9.17-9.23

9월

4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아리랑 공연 관람(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매스게임)’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공연을 관람한 김 제1위원장은 “‘아리랑’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해 새 맛이 나게 훌륭히 재형상했다”고 만족을 표하고 출연자와 창작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고 통신이 밝힘.
- 北 최영림 총리, 나선·회령 현지 점검(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함경북도 회령시와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최 총리는 회령시를 방문해 시의 발전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자재공급 및 식생활과 관련한 공장, 기업들을 둘러본 뒤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駐스웨덴 대사에 박광철 임명(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박광철을 스웨덴 주재 대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또한 전임자인 리희철 대사가 스웨덴에 주재하면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8개국 대사를 겸임한 점으로 미뤄 박 신임 대사 역시 이들 지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리설주=김정숙’ 이미지 만들기(9/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친인 김정숙을 찬양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1일 1면 머릿기사로 올해 4천200 여개 단체, 45만 여명이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의 김정숙 동상을 찾아 경의를 표했다고 보도하는 등 북한 매체는 지난 17일부터 김정숙에 관한 선전에 열을 올림.
 -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다심한 손길은 군인들의 식생활에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해방 후 사회 복구에 전념하던 때 김정숙이 한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의 식사를 챙겼다고 소개함.
- **北김정은, 채소·화초 재배시설 현지지도(9/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남새(채소)과학연구소와 평양 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아 영양분공급실, 컴퓨터제어실, 생물공학실, 연구실 등을 둘러보고 나서 채소는 종합비타민과 같으며 “풍토에 맞으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우량품종을 많이 생산해 주민에게 공급하라”고 지시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아 생산능력이 이전보다 20여 배 늘어난 점을 언급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씨를 들여오고 다른 나라의 선진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화초연구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리룡하·박태성·김병호·박춘홍 당 부부장이 동행함.
- **北 ‘어머니날’ 제정…여심잡기(?) (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이 제정된 것만큼 꽃을 사다가 어머니나 아내에게 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은 ‘어머니의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모인 김정숙의 사망일인 22일에 즈음한 날일 것으로 관측됨.

■ 김정은동향

- 9/18,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9.18,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함경북도 회령시의 공장·기업소 등과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하여 '요해사업' 진행(9.17,중통·중방)
- 방문지 : 김정숙교원대학, 중봉탄광, 나선경제무역지대 등
- 김정일애국주의 실천을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9.20 김기남(黨비서) 등 참가자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9.20,중통·중방)
- 김정숙 사망(9.22) 63돌 계기 △김영남·최영림·최룡해 등 당과 국가·군대 간부 등, 9.22 대성산혁명열사능에 헌화 △전국 각지 김정숙 동상에 인민군 등 꽃바구니 진정(9.22,중통·중방)

나. 경제

● 北총리, 주요공장에 생산량 확대 주문(9/20,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내각총리가 최근 북한의 대표적인 공장들을 연속 방문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생산량을 크게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최 총리가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점검하고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생산량을 더욱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전역서 일제 승용차·버스 폐기(9/18,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일본산 자동차를 회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 북한 전역에서 일본산 승용차와 버스가 거의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이 방송은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북한에는 일본산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더 이상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함.

● 北 경공업大 ‘고려성균관’ 새 교사 준공(9/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경공업 분야 종합대학인 고려성균관의 새 교사 준공식이 1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새 교사는 본 교사와 세 개의 부속건물로 구성됐으며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종합강의실, 교실, 실험실, 강좌실, 문화후생시설 등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 학생들의 학과학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전함.

● 北, 옥수수 수확 끝내고 벼수확 돌입(9/22,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

- 22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등에 따르면 황해남도 각 시·군·구의 협동농장들이 최근 세부적인 추수 일정 계획을 세우고 벼 가을걷이에 돌입함.
- 북한 매체들은 “벼 품종별로 생물학적 특성과 여무는 정도에 맞게 추수 적기를 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만경대구역, 강남·낙랑군, 순안, 역포구역 등 평양 시와 주변구역, 군의 협동농장 등이 영농조직을 점검하고 벼 가을걷이를 시작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고려성균관 새 교사 준공식, 9.19 최영림(총리)·최태복(黨 비서)·김승두(교육위 위원장)·박태덕(黃北道黨 책임비서)·강영수(黃北道 인민위 위원장)·김영일(개성시黨 책임비서) 등 참석下 진행 (9.19, 중통·평방)
- 제13차 평양국제영화축전 개막식, 9.20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9.20, 중통·평방)
- 양형섭, 김용진(내각부총리), 홍광순(문화상, 개막사), 차희림(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

2 대외 관계

● 北, 日에 ‘북일 평양선언’ 이행 촉구(9/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7일 북일 평양선언 10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두 나라의 관계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의지가 있다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일 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논평에서 “조일 평양선언을 끝까지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에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다”고 촉구했으며 “공화국 정부는 조일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처음부터 선언의 기본정신을 왜곡·모독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함으로써 선언에 밝혀진 사항들을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를 백지화하는 길로만 나아갔다”고 비난함.
- 또한, 논평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선언 이행의 근본인 과거청산의 조항을 뒤집어엮었으며 일본이 핵·미사일·납치문제를 집요하게 걸고 들면서 북일 관계를 선언 채택 이전보다 더한 적대관계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함.
- 또한 “일본의 악랄한 대결정책과 책동으로 조일 평양선언은 마치도 그 누구의 핵·미사일·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인 듯이 심히 왜곡돼 왔으며 그 이행문제는 날로 요원해지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추종해 핵·미사일·납치문제에 계속 매달린다면 조일 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함.

● 中, 北 북동부 4~5개 항구 공동개발(9/17,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 청진항을 포함해 북한 북동부 항구 4~5곳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베이징의 유력 소식통은 17일 북·중 양국의 민간 기업이 선봉, 나진, 청진, 김책, 단천, 흥남, 원산으로 이어지는 북한 북동부지역 항구 가운데 4~5곳에 대해 공동 개발에 나섰음을 중국 관련 당국자로부터 확인했으며, 이 소식통은 “나진항은 이미 북·중 양국의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이 공식화한 곳이고 청진항 공동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 北, 일본인 성묘객 방북 또 허용(9/18, 교도통신)

- 북한이 평양 등지에 있는 가족·친척의 묘지를 참배하려는 일본인의 방북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사토 도모야(佐藤知也.80)씨 등 일본인 16명이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방북할 예정이며, 북한은 지난달 말에도 일본인 유골 수습을 요구해온 일본 민간단체 '전국청진회(全國淸津會)' 회원들의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힘.

● 北, '센카쿠 영토분쟁' 중국 편들기(9/19,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釣魚島·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1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가 최근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며 "성명은 일본 정부가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한 발언을 소개함.

● 印尼, 北에 200만 달러어치 식량 지원(9/20, 안타라 통신 등)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에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관영 안타라 통신 등이 20일 보도함.
- 통신 등은 아궁 락소노 인도네시아 복지조정장관이 전날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리정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대사에게 200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고 전함.
- 락소노 장관은 "지원은 200만 달러 상당의 팜유와 비스킷류, 다른 식품 재료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함.

- **中, 北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가속화(9/20, 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북한 나선경제특구와 관련된 각종 기반시설 건설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20일 “나선특구 기반시설 건설에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두만강대교(중국 훈춘~북한 원정리)를 대체할 새로운 교량과 나선특구에 중국의 전력을 보내는 송전탑 건설을 위한 기초 지질탐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힘.
 - 또한, 이 소식통은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이미 양측이 합의하고 설계를 위한 지질탐사를 끝낸 상태”라고 덧붙임.

- **北, ‘日에 MD용 레이더기지 설치’ 계획 비난(9/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최근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미사일방어(MD)시스템 관련 레이더를 일본에 설치키로 한 데 대해 20일 “우리로 하여금 미국의 ‘적수’답게 보다 강력한 핵보유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 국방장관이 새로운 레이더 설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라며 “미 군부 당국자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반발함.
 - 이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사일대국인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노린 군사력 증강을 다그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핵억제력을 끊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임.

- **北, 남포·해주·신의주 특구 추가 계획(9/23, 도쿄신문)**
 - 북한이 남포와 해주, 신의주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함.
 - 신문은 익명의 북중 소식통과 한국 연구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방중시 남포 등 3곳을 경제특구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함.

● 北, 중국과 ‘재난구조 품앗이’ 강조(9/23,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조중(북중)친선의 화원 속에 꽃피난 또 하나의 감동깊은 소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바다에서 조난당한 어선이 중국 선박에 구조된 소식을 자세히 소개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함경남도 단천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북한 어선이 갑작스런 고장으로 세찬 바람과 파도에 표류하면서 침몰할 위기에 놓였으나 중국 산둥성의 성양(청양)어업공사 소속 ‘민하어호’가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수시간에 걸쳐 선원 3명을 무사히 구조한 뒤 다음 날 오전 함경북도 나선 앞바다에 도착함.
- 노동신문은 “중국 선원들의 소행은 조중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과 손길 아래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 하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에 소중히 간직된 고상한 도덕 의리심의 발현”이라고 평가함.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北-日 평양선언 채택’ 10주년(02.9.17)을 맞으며 ‘日 당국자들이 관계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의지가 있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평양선언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9.17, 중통/조일관계개선은 일본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 美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 강경정책 발표 관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며 ‘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핵위협제거에 달려 있다’고 주장(9.17, 중통·노동신문/대조선강경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 舊 소련시절 ‘北이 러시아에 진 빚 조정에 관한 북-러 정부간 협정’, 9.17 모스크바에서 조인(9.18, 중통)
 - 北 ‘기광호’ 재정성 부상과 러시아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재정성 부상이 서명
 - 협정 체결로 양국간 경제적 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마련됨
- [北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美 국방장관의 日 남부지역에 새로운 레이더기지 설치 발표 관련 ‘지역미사일방위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라며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뿐’이라고 비난(9.20, 중통·중방)
- 北 대표단(단장 : 박길연 외무성 부상), 9.20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9.20, 중통·중방)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9.13 중국 청년친선 대표단과 담화(9.13, 중통)

3 대남 동향

- **대북 수해지원 밀가루 500t 육로 전달(종합)(9/21,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밀가루를 직접 지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주차장에서 대북 수해지원용 밀가루 500t 전달을 위한 환송식을 열었음.
 - 이날 25t 트럭 20대에 실려 전달되는 밀가루는 오전 10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북한의 개성 봉동역에 하역된 후 울여름 수해가 가장 심했던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임.

- **北 매체, 안철수 대선 출마 첫 보도(9/21, 우리민족끼리TV)**
 - 북한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가 2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보도함.
 - 이 매체는 이날 남한 소식을 보도 형식으로 정리한 동영상을 게재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남조선 언론들이 보도했다”고 소개함.
 - 또한, 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대의 숙제를 감당하려고 한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심이다” 등의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음.

- **北어선 서해NLL 또 침범..軍경고사격에 퇴각(종합)(9/21, 연합뉴스)**
 - 북한 어선이 21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 어선 6척이 오전 11시44분부터 연평도 서북방 NLL을 0.5~0.7노티컬마일(0.9~1.2km) 정도 순차적으로 침범했다”면서 “이에 해군 고속정 2척을 오후 3시부터 NLL 인근으로 고속 기동시켜 각각 2회에 걸쳐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어선은 오후 4시에 모두 퇴각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고통신만 했는데 NLL 월선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이번에는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조치했다”며 “고속정이 보유한

별컨포(20mm) 수십 발을 북한 어선이 인지할 수 있는 해상에 발사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고 해안포도 개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북한군 경비정은 황해도 연안에서 기동 중이었으나 NLL 부근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北 “南, 다른 나라 어선에 총질”(종합)(9/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 군이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가한 것에 대해 22일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냈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를 통해 “21일 하루 동안 여러 차례 걸쳐 술한 괴뢰해군 쾌속정이 연평도 서남쪽 해상경계선 우리측 영해 깊이 기어들어 총포탄을 쏘아대는 난동을 부렸다”며 “상대가 평화적인 민간 어선이 분명하다고 제놈들 입으로 쫓치면서도 거기에 대고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살인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함.
- 또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우리 어선이 아닌 다른 나라 어선의 무질서한 어로작업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다는데 있다”며 “그것도 언제 한 번 인정받은 적 없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마치 우리 어선들이 넘은 것처럼 거짓과 억지주장을 꾸며내 광고하면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 南 서방사 대응 서남전선사령부 창설(9/23, 연합뉴스)

-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지난 9일 남측을 비난하는 ‘공개보도’를 내놓으면서 그 명칭이 처음 공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23일 “북한의 서남전선사령부라는 명칭이 최근에 처음 등장했다”면서 “이 사령부는 황해도에 있는 4군단사령부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작년 6월15일 출범한 우리의 서방사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전선사령부를 창설한 것 같다”고 말함.

● 北 “南정부, 안보문제 부각해 재집권 기도”(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3일 우리 군이 이틀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어선에 경고사격을 한 것이 남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연일 비난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 패당이 이번에 최대 열점지역인 서해군사경계선 일대에서 감행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은 어떻게 하나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파멸의 위기에서 출로를 찾고 살구명을 열어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모략”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어 “그것은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 당한 참패와 수치를 만회하며 안보문제를 부각시켜 민주개혁세력에 쏘리는 민심을 차단하고 괴뢰 대통령 선거 정세를 보수패당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몰아가 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주장함.

9.24-9.30

9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평양 집결(9/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이 평양에 모여 회의 참가준비를 마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4일 인민무력부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이날 전함.

- **北, 12년제 의무교육 공표…경제개혁 발표 없어(종합)(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지만 기대를 모았던 경제개혁 관련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의 관련 보도에서 안건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에 대해 ‘조직문제’라고 밝혔지만 경제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 또한, “회의에서는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힘.

- **김정일 아랍계 수양딸, 北 투자설명회 등장(9/26,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양딸로 알려진 아랍계 여성이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 경제특구 투자설명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북한 당국은 20대의 나이로 추정되는 그녀를 귀빈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으며, 이 여성은 자신을 김 위원장의 양녀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을 위한 기금인 진달래아동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함.

김정은동향

- 9/25,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 9.25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석(대의원 : 687명中 597명 참석)下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등 진행(9.25,중동·중방·평방)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발표】

-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 하고 사회주의 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며, △1년제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함.
- △2013년~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안에 마침.
- 9/25, 김정은 黨 제1비서, 9.25 함옥란 100세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포혁명학원 등 남포시 각급 학원들에 '감 선물' (9.29,중방)
 - 김정은, 최고성지 조성에 이바지한 전자공업성 부원 등에게 '감사' 전달(9.29,중방)
- 9/29,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대학습당에 많은 도서들과 자료들 전달(9.29,중통)
 - 올해 정초부터 현재까지 보내준 도서는 36차에 걸쳐 총 2,300여종 1만8,800여부임.

기타 (대내 정치)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 발표' 관련 '김정은의 후대관, 미래관을 깊이 새겨 교육중시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며, 당의 후대중시, 교육중시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것'은 독려(9.27,중통·노동신문·중방/우리 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최영림(내각총리), 평성합성가죽공장 및 평양항공역 2항공역사 건설정형 현지요해(9.29,중통·중·평방)

나. 경제

● 北, 농업개혁 추진...곡물 시장거래 허용(종합)(9/24, 로이터 통신)

- 북한이 농업 생산량 증산을 위해 농민들이 수확량의 최대 50%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농업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베이징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이 2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량난 완화와 농산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환전상, 송금업무까지 취급(9/2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은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환전상들이 암암리에 주민들의 송금 업무까지 취급하는 등 사실상의 금융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 암시장에서 외화를 거래하는 환전상들이 수수료를 받고 송금을 대행해주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 경우 송금자와 수령자는 각각 송금액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며 북한의 화폐뿐 아니라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도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독자 개발 태블릿PC 공개(9/27, 신화통신)**
 - 북한이 독자 개발한 태블릿PC가 공개됐다고 신화통신이 27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에서 개막한 제8차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서 7인치 화면을 장착한 태블릿PC ‘아침’을 선보였다고 보도함.
- **北 류경호텔 2~3년내 완공 전망(종합)(9/27, 연합뉴스)**
 - 1980년대부터 짓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공사 중인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이 앞으로 2~3년 안에 완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는 호텔 공사 현장 소식통들이 “호텔 객실과 사무공간, 장기임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되기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26일 전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추석…차분한 하루(9/30,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 민족끼리’는 30일 “한가위는 연중 민속명절 중에서 가장 크게 쇠는 명절의 하나”라며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들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추석을 새 지도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데에도 활용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속명절과 관련해 주신 가르치심과 취해주신 조치”로 추석이 민족명절로서 더욱 발전하게 됐다고 찬양했고, 우리 민족끼리는 “추석을 맞으며 인민들은 민속전통을 더 활짝 꽃피주시는 김정은 원수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다”며 김 제1위원장도 부각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8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9.24~27) 개막식, 9.24 강석주(내각부총리)·리용남(무역상)·김성덕(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오일훈(조선국제전람회 부사장/개막연설) 등 참가자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9.24,중통·중방)
 - 중국, 네덜란드,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210여개 무역회사들과 단체들 참가
- 김일성종합대학과 유라시아-태평양대학연합의 공동학술토론회 개막식, 9.24 성자립(김일성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 등 참가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9.24,중통)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러, 北에 밀가루 4천t 추가 지원(9/24, 러시아의 소리)**
 -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4천t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4일 전함.
 - 이 방송은 “러시아 비상사태부가 북한에 밀가루 4천t을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비상사태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러시아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 계획(WFP) 사이의 양해문에 따라 실현된다’고 말했다”고 밝힘.

- **北中, 베이징서 경제특구 투자설명회 개최(9/2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26일 베이징(北京) 시내 중심가의 베이징치아오(北京橋) 예술센터에서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특구 투자설명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북한 측은 중국 주요 기업들에 보낸 초청장에서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주력하는 북한이 중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으며, 투자설명회에 북한의 조선흑색금속수출입상사, 조선선박무역회사 등 국영기업 관계자 36명이 나와 투자대상 43개 프로젝트를 소개했음.

- **中 상무부 “기업 대북투자 적극 지원”(9/27,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의 천젠(陳健) 부부장이 “실력 있고 뜻있고 성의있는 중국 내외 기업의 북한 황금평·위화도, 나진 경제특구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27일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천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의 북한 투자설명회에 참석, “양국이 이미 경제특구 두 곳에 공동개발관리지도위원회를 구성했고 개발계획, 법률, 통관, 통신, 인적훈련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함.
 - 또한, 그는 “두 경제특구가 외국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면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고 밝힘.

- **北 양대 경제특구서 中 위안화 공식 통용(9/27, 중국 신정보(新京報))**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서 양국 화폐가 공식 통용될 전망이라고 중국 신정보(新京報)가 27일 보도함.
 - 신정보에 따르면 북중은 26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이들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설명회에서 중국 위안화와 북한 화폐를 경제특구 내 결제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고 양국 은행의 분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 경제특구 투자자의 경영소득에 대한 역외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과 외국인 소유 차량은 별도의 비자 발급과 출입증명서 없이 규정된 통로를 거쳐 출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음.

- **스웨덴, 北 장애인 지원에 43만 달러 기부(9/28,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이 북한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43만 달러(약 4억8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스웨덴은 지난 21일 국제구호단체 ‘핸디캡인터내셔널’과 이런 내용의 대북지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단체는 스웨덴이 기부한 자금으로 북한 만흥정형외과병원과 함흥재활센터에서 재활 치료에 나서고 북한의 특수학교 4곳에서 장애아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힘.

- **中, 백두산 北지역 관광 개발 참여(9/28, 중국 성시만보(城市晚報))**
 -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의 북한 쪽 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다고 중국 창춘(長春)에서 발행되는 성시만보(城市晚報)가 28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북중은 지난 25일 ‘제1차 백두산 합작개발 관광프로젝트 상담회의’를 열고 쌍방간 합작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북중이 백두산의 북한 지역 관광프로젝트 건설을 공동 추진하기로 확정했고 평등과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합작의 심도와 범위를 꾸준히 제고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北, 美의 미얀마 대북관계 단절 요구 비난(9/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미국은 처음에는 미얀마에 우리와의 군사관계를 중단할 것을 강요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나쁜 친구’로 몰아붙이며 관계단절을 공공연히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난함.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과 18일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각각 뉴욕과 워싱턴DC에서 만나 미얀마와 북한의 군사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를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힘.

● **올 1~8월 북중 교역 40억 달러…작년比 11% 증가(9/29, 미국의소리(VOA))**

- 올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8월 말 현재 40억 달러가 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9일 전함.
- VOA는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의 통계자료를 인용, 올 1~8월 북중 교역액은 40억2천123만2천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7억1천473만5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으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3억649만7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함.

● **北, 對中 곡물수입 의존도 낮아져(9/29, 연합뉴스)**

-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이 2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중 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쌀, 밀가루, 옥수수 등의 곡물은 18만1천2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6천535t에 비해 16.3% 감소함.

- **美단체, 내년 2월까지 北어린이에 영양쌀 지원(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어린이구호단체인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가 내년 2월까지 매달 35만 끼의 영양쌀을 북한 어린이에게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이 단체의 홀리 도네이토 대변인은 발육부진의 북한 어린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30가지 영양소가 든 영양쌀 420만 끼분을 지원한다고 밝힘.

- **北 김정숙군-中 장백현 자매결연(9/29, 길림신문(吉林新聞))**
 - 북중 접경인 북한 량강도 김정숙군과 중국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이 자매우호결연을 했다고 중국 길림신문(吉林新聞)이 29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김정숙군 인민위원회 김승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친선대표단은 최근 장백현을 방문, 자매우호결연 조인식을 했음.
 - 장백현 공산당위원회 추라이푸 서기는 조인식에서 “장백현은 김정숙군과 변경무역, 관광, 광산자원 개발, 노무 송출 등의 방면에서 협작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입화물의 종류를 늘리고 김정숙군의 풍부한 석영과 산나물, 한방약재 자원 등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함.

- **두만강 상류 북·중 국경, 철조망 완전봉쇄(9/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맞은 편 중국 지역에 최근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돼 두만강 상류 북중 국경지역이 봉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이시마루 지로 대표의 말을 인용해 29일 전함.
 - 또 지난 4월에는 함경북도 무산군 건너편에 새 철조망이 설치된 것이 확인됐다고 RFA가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中 위생부에서 北 보건성에 협조물자 기증식, 9.26 강하국(보건성 부상), 류홍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9.26,중통)
- 中 중앙TV방송국에서도 北 중앙방송위원회에 9.25 설비 기증(9.26,중통)

나. 6자회담(북핵)

- ‘미니 6자회담’ 종료..북핵문제 입장차 확인(종합)(9/28, 연합뉴스)
 - 각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북아협력대화 (NEACD)가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28일 종료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다롄(大連)의 캠핀스키 호텔에서 속개된 이날 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 대표단간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함.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핵무기고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온 북한의 기존 논리를 되풀이함.
 -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각각 북한의 약속 파기를 문제 삼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지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관련국이 대립각만 세울 게 아니라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짐.
 - 공식 회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 대표단과 접촉했으나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도 북미 양국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북 6자회담 차석대표간에는 식사 장소에서 인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접촉은 없었음.

3 대남 동향

● 北, 박근혜 과거사 사과 발언 비난(9/27, 연합뉴스)

- 북한은 27일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5·16 쿠데타’와 ‘유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지난) 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6 쿠데타와 유신, 인민혁명당 사건 등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놀음을 벌였다”라고 밝힘.
- “문제는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이 북의 ‘남침 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하면서 우리(북한)를 결코 든 것”이라며 “5·16과 유신 당시 ‘북의 위협’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북과 남에 평화통일 기운이 넘쳐났다”고 주장했음.
- 또한 대변인은 “새누리당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권 후보들의 인기 상승으로 자칫 ‘대선’에서 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게 된 데 있다”며 “새누리당 후보의 집권은 유신 독재의 부활과 북남 사이 대결의 격화, 전쟁 위협의 증대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덧붙임.

● 北 대남기구, 북한인권영화제 비난(9/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최근 국내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함께 연 ‘북한인권영화제’를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패당의 배후 조종 밑에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얼마 전 서울에서 ‘제2차 북인권국제영화제’라는 것을 벌여놓고 ‘탈북자생활’이니 ‘수용소실태’니 하는 내용을 다뤘다는 반공화국 인권영화 9편을 상영해 우리(북한)를 험악하게 중상모독했다”고 주장함.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세계제패전략실현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 동족대결책동만을 일삼는 괴뢰패당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선동 및 “무자비한 자위적 조치로 대담할 것” 위협(9.25,중통/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핵전초기지)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관련 ‘5.16과 유신이 北의 남침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 발언을 시비하며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고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며, 반대 배격해 나설 것’을 선동(9.27,중통·평방)

10.01-10.07

10 월

1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中 후진타오에 정권수립 기념 축전(10/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정권 수립 63주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이 이날 공개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63돌에 즈음해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재부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노동)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협조관계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공고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전함.

- 北,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동상 건립(10/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국가안전보위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건립하고 2일 제막식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전함.
 - 이 방송은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이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에 건립됐다”며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을 군부대에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전체 장병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일대 사변”이라고 밝힘.

- 北인민보안대학, 김정일인민보안대로 개명(10/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체제보안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민보안대학을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개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전함.
 -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이 그의 이름을 넣어 학교명을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우상화와 정권에 대한 주민의 충성을 다지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보답하는 학교 관계자, 학생 등의 결의모임이 5일 있었다고 소개함.

● **김정은, 보위부서 불순 적대분자 색출지시(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를 방문하고 강도 높은 적대분자 색출작업을 지시했다고 7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보위부에 새로 세워진 김정일 동상을 찾아 둘러보고 “장군님(김정일)의 동상을 단독상으로 모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된다”며 김정일 동상을 보위부에 먼저 세우게 한 것은 보위원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신임의 표시라고 말함.
- 이어 “보위부는 적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나 양보는 곧 죽음이며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인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며 “원수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 책동을 단호히 짓부쉬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고 어리석게도 탄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은 단호하고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려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또 보위부 지휘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데서 보위부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적들이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려고 책동하는 조건에서 보위부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쉬버리기 위한 책략을 바로 세우고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15주년 기념 보고대회(10/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15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보고대회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의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보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노동당을 이끌어 김일성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근본 초석을 마련했으며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부강조국 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고 말함.

- 이어 “그이(김정은 제1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노동당의 권위와 위력은 비상히 높아지고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라며 “전당과 온 사회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의 두리(주위)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은동향

- 10/4,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13일과 27일 단천지구광업총국 등 여러단위 일꾼·근로자·교직원·학생들에게 ‘친필’ 전달(10.4,중통)
- 10/5, 김정은 黨 제1비서, 10.5 80회 생일을 맞은 김용수(비전향장기수)에게 생일상 전달(10.5,중통)
- 10/7,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 및 만경대유회장과 대성산유회장 시찰(10.7,중통·중방)
 - 최룡해 동행,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대장), 김창섭(보위부 정치국장/상장) 등 영접

기타 (대내 정치)

- 개천절 기념행사, 10.3 김영대(『민화협』 회장/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류미영(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천도교청우당 위원장)·강련학(『조국전선』 중앙위 의장) 등 참가자 단군릉 앞에서 진행(10.3, 중통·중방)
- 최룡해 총정치국장, 만경대유회장·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평양시 여러 대상 건설정형 현지요해(10.6,중통)

나. 경제

● 北자강도 희천발전소 평양시에 직접 전기 공급(10/3, 조선신보)

- 북한 자강도에 올해 4월 완공된 희천발전소가 평양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3일 보도함.
- 신문은 이날 ‘희천발전소, 수도에 전문적으로 공급’이라는 평양발 기사에서 “(희천)발전소는 수도(평양)에 전문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로 규정되고 있다”며 “생산된 전기의 전량을 평양에 직접 보내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신문은 “발전소에서 평양까지 이르는 송전선도 동시에 꾸려졌다”며 “새로 설치한 송전선을 통해 희천에서 직통으로 전기가 (평양에) 들어옴으로써 주파수와 전압이 안정된 전력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北 쌀값 6개월째 올라 역대 최고 수준(10/7, 데일리NK)

- 북한의 쌀값과 환율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거듭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북매체인 데일리NK가 7일 전함.
- 데일리NK가 주기적으로 집계해 공개하는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27일 평양, 신의주, 혜산 등 북한 3개 주요도시 쌀값은 전달 대비 kg당 1천300~2천200원(북한 원화 기준) 올라 각각 6천800원, 6천500원, 6천300원을 기록함.
- 미국 달러 대비 북한 원화의 환율 역시 전달보다 970~1천260원이 오른 6천370(평양)~6천500원(혜산)으로 집계됨.

다. 군사

● 北, 안보장관회의 다음날 단거리미사일 발사(10/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다음 날 서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4일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안남도 서해안에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서해 상으로 80~9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 또한, 이 소식통은 “당시 시험발사가 일상적인 성능개량 일환일 수 있지만 시점상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함.
-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달 27일 이전에도 서해와 동해에서 지대함 등 단거리미사일을 4~5차례 이상 시험발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함정을 겨냥해 단거리미사일 사거리를 확장하고 폭약 성능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9월 식량배급량, 유엔 권장량 절반 수준(10/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지난달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310g으로 지난 8월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9월 식량배급량은 전년 동기의 200g에 비해 55% 증가한 것이지만, 올 상반기 평균 393g보다는 21% 감소한 것으로,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51.7%에 불과하다고 밝힘.

- **北 60세 이상 인구, 40년 후 두 배로 증가(10/3, 연합뉴스)**
 - 북한의 60세 이상 노인이 40년 후에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유엔인구기금(UNFPA)은 3일 ‘21세기의 고령화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332만1천명인 북한의 60세 이상 인구가 2050년에는 612만8천명으로 두 배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전체 주민에서 60세 이상의 비율은 올해 13.5%에서 2050년에는 2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인권 탄압 지속(10/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하에서도 북한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유엔이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6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하였으며, 다르스만 보고관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승계 이후에도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가을 작황 안 좋아...식량상황 악화(10/5,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FAO는 지난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식량상황이 이 단체가 지난 6월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와 비교해 더욱 악화했다고 밝힘.
- **北, 외국 웹사이트 하루에 1만건 검색(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인터넷 폐쇄국가인 북한이 하루에 1만건 정도 외국 웹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정보통신환경 분석업체인 ‘스탯카운터(Statcounter)’는 최근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인터넷과 무선 통신으로 하루에 외국 웹사이트를 접속하거나 검색한 건수가 1만건 가량 된다고 밝혔으며, RFA는 “한국의 1억건과 미국의 42억건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북한에서도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활발한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2 대외 관계

- **北, 일본인 유족에 종전 후 첫 묘 참배 허용(10/1, NHK)**
 - 북한이 일본인 유족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묘 참배를 허용했다고 NHK방송이 1일 보도함.
 - 일본인 유족 16명은 묘 참배를 위해 지난달 29일 평양에 들어갔으며, 30일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안내로 과거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봤고, 이날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 매장지인 ‘용산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고 전함.

- **러시아, 北에 밀가루 2천t 추가 지원(10/1,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가 태풍 등으로 수해를 당한 북한에 밀가루 2천t을 추가 지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1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밀가루를 실은 러시아 선박이 함경북도 청진항에 도착했으며 함북도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대표단 등이 구호물자를 수령했다고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 바체슬라프 추피코프가 밝힘.

- **北외무성부상 “세계적 추이 맞게 경제구조 개선중”(10/2, 조선중앙통신)**
 - 제67차 유엔 총회에 북한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최근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 외무장관회의에서 북한이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2일 “9월28일 77개집단 외무상회의에서 조선대표단 단장(박길연 부상)이 연설했다”며 “그는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추이에 부합되게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구조와 발전방식을 부단히 개선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박 부상은 이어 “(북한 정부가)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조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덧붙임.

- **中 다롄서 항공편 금강산 관광 시작(10/2, 조선중앙통신)**
 -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북한 금강산 유람에 나서는 관광 상품이 도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중국 다롄부려화국제여행사유한공사의 김춘일 총경리를 단장으로 하는 ‘제1차 비행기에 의한 다롄-금강산국제관광단’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며 “관광단은 금강산을 유람하고 평양시와 개성시의 여러 곳을 참관하게 된다”고 전함.
- **北청진-러시아 하바롭스크 협력발전 의정서(10/3, 러시아의 소리방송)**
 -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알렉산드르 소코로프 시장이 북한 함경남도 청진시를 방문해 하바롭스크와 청진시 사이의 ‘협력발전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3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바체슬라프 추피코프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의 언급을 인용해 “의정서에 따라 쌍방은 대표단, 예술단, 체육단을 교환할 것”이라며 “소코로프 시장의 청진 방문기간에 두 도시 사이의 경제·관광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언급됐다”고 밝힘.
 - 소코로프 시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 임천일 북한 외무성 국장을 만났고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에서 북한 상품들을 소개하도록 하바롭스크 기업가들을 초청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中, 농업부문 협력 양해각서 체결(10/4, 조선중앙통신; 로이터통신)**
 - 북한 농업성과 중국 농업부가 4일 평양에서 농업부문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이날 양해각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리석철 부상 등 농업성 간부들이, 중국 측에서는 뉴둔(牛盾) 부부장 등 중국 농업부 대표단과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북한과 중국의 농업부문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북한에서 농업개혁 움직임이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고 밝힘.
 -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4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경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농민은 지역에 따라 수확량의 30~50%를 가져가거나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전함.
- **북-러, 노동자 파견 의정서 조인(10/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재외파견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그룹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공화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일방 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상대방) 국가 국민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실무그룹(그룹) 제3차회의 의정서가 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밝힘.

● **북한 경제 사절단, 스웨덴서 ‘시장경제’ 수업(10/5,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

- 25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기업 및 무역 사절단이 2주 일정으로 스웨덴을 방문했다고 스웨덴 공영 라디오 방송이 5일 보도함.
- 이번 방문은 스웨덴산업국제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wedish Industry)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스웨덴 경제를 배우고 기업, 은행, 국가기관을 견학하려는 목적이며 사절단은 주로 대학, 국영 수출기업,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내년 4월 北에 풍력발전기 준공(10/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이 내년 4월 북한 평안남도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에 소형 풍력발전기의 설치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이 방송은 유엔개발계획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UNDP가 이달 15~20일 북한의 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풍력발전기 설치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소개함.

■ 기타 (대의 일반)

- 일제의 ‘조선총독부’ 설치(10.1) 관련 “조일관계가 개선되자면 일제의 과거죄악이 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며 ‘일본의 과거청산 용단’ 촉구(10.1, 중통·노동신문/과거청산은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 ‘77개 집단 외무상회의’(9.28, 유엔본부)에서 ‘△공평한 국제무역질서와 금융체계 확립, △유엔개혁, △남남협조와 77개 집단 성원국들의 단결과 연대성 강화’ 등 주장(10.1, 중통·중방)
 - 北대표 단장도 연설에서 ‘北은 앞으로도 정의와 평등,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관계 수립을 위한 77개 집단의 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 강조(10.2, 중통)
- 北 대표단장, 10.1 유엔총회 제67차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성원국들의 노력에 합세,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이 청산되지 않는 한 핵문제는 未해결, △反통일세력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책임적 노력을 다할 것’ 등 주장(10.4, 중통·중방)

3 대남 동향

- 北, '종북교육' 비난 대남전단 대량살포(종합)(10/2, 연합뉴스)
 - 북한이 국방부의 '종북교육'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남 전단(빠라)을 대량 살포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9일 저녁 북한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기구(氣球)를 관측했다"면서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 기구가 떨어진 경기도 김포와 파주군 일대를 수색한 결과 대남 전단 1만6천~1만7천여장을 발견했다"고 밝힘.
 - 이 대남 전단의 한 면에는 '종북교육은 독재옹호 교육' 등의 문구가, 다른 면에는 조봉암·장준하 선생 등 5명의 인물 사진과 함께 '국방부의 종북 교육은 이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보도함.
- 北 "10·4선언 태도가 통일·반통일 나눌 시금석"(10/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남북공동선언인 '10·4선언' 5주년을 맞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북남관계파탄의 5년은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공동선언의 이행에 민족이 살 길이 있고 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또한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이 흐지부지된 것은 현 정부와 새누리당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이명박 역도의 비참한 운명은 반공화국 대결로 얻을 것이란 파멸뿐이며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겨레의 지향이고 역사의 진리임을 확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南 차기정권 남북선언 존중시 北 호응(10/5,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남한의 차기 정권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면 북한도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이날 '평화 번영에 대한 기대와 확신: 10·4선언 발표 5돌, 평양의 여론'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구성

되는 남측의 다음 정권이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려 한다면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것이며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적인 후속 조치들이 끊임없이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을 것이라고 연설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4·15열병식 연설을 통해 북의 변함없는 통일 의지가 표명됐다”고 덧붙임.

● **북한軍 초소서 ‘탕..탕’..4분만에 南으로 귀순(10/7, 연합뉴스)**

- 남측 초소와 불과 500m 거리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북한군 1명이 6일 낮 상관을 사살하고 귀순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해 한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 군은 사건 발생 불과 4분여 만에 북한군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귀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함.
- 이날 낮 12시6분께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북측 초소에서 6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일대는 긴장감에 휩싸였고 순간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측 초소와는 불과 500m 거리의 지척에 있던 우리 군의 경비초소에도 긴박감이 감돌았음.
- 총성과 함께 전방을 주시하던 우리 측 초소의 경비병이 화성기로 “귀순자냐?”고 물었고, 북측 병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MDL을 넘어 우리 측 초소로 뛰어들었고, 우리 군은 4분여만인 낮 12시10분께 귀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함.
- 그는 귀순 후 우리 군에 “경계근무를 하던 중 소대장과 분대장을 사살하고 귀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제 우리 군은 사건 직후 북측이 초소에서 북한군 2명을 옮기는 장면을 관측했는데 북한군 초소에는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군은 즉각 경계태세를 강화함.

기타 (대남)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李大統領의 '국군의 날' 기념사(9.26, 北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東北亞지역이 도전을 받고 있음)에 대해 '한반도와 東北亞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조성 책임을 北에 넘겨썩워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술책'이라고 비난(10.1,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李大統領의 民主平統 해외 자문위원들과 다과회(9.25, 청와대) 발언(누가 지금 북한에 쳐 들어가지 않는 데 국방력 강화로 국민소득 하락 등은 '北 미사일발사 비용문제 거론 再版'이라고 비난(10.1,중통)
 - 民主平統 해외 자문위원들 청와대 초청행사 및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국군의 날 기념사 對北 발언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몽매한자의 발광적 추태"라고 재차 비난 (10.1,중통·노동신문·평방/가련한 산송장의 발광적 추태)
- 南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준비위와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10.3 개천절 기념 '南北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자'고 강조(10.3,중통)
 - 첫째, 우리는 단군민족의 자존으로 자주성을 찾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자주·자강·자립의 정신과 원칙으로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모든 대립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 중앙통신사 상보(10.4), '10.4선언' 발표 5돌을 맞으며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며 '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우리의(北)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10.4,중통/북남관계 파탄의 5년은 고발한다)
- 北 「조평통」 대변인(중통기자 문답), 10.4 대통령과 「합참」 의장·국방부장관 등 '北 도발가능성' 발언 등은 '우리(北)를 자극하여 충격적사건을 조작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며 이는 "보수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의도적인 모략도발"이라고 왜곡 비난(10.4,중통·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08-10.14

10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당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67주년 기념일인 10일 주요 군 간부를 대동하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으며,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인 ‘태양상’에 경의를 표한 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北 현영철 총참모장, 대장 계급장 달고 등장(10/10,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차수인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10일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대장 계급장을 잇따라 달고 나타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함.
 - 신문은 이날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고위간부들과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을 실었는데 현 총참모장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고 전함.
 - 또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고위간부들이 은하수음악회 ‘그리운 어머니’를 관람한 소식을 보도했는데 여기에서도 현 총참모장은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당 창건 기념 모란봉악단 공연 참석(10/1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음 맞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비교적 조용하게 치른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90분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노동당비서와 김 비서의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동석했으나, 부인 이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이날 공연에선 공연장 내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안경을 쓴 채 일하는 모습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는데 북한을 방문 중인 한 외국인은 김 위원장이 안경을 쓴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전함.

● 北 김일성광장서 마르크스·레닌 초상화 ‘철거’(10/12, 연합뉴스; 엔케이뉴스)

- 북한 평양의 김일성광장 건물에 걸려 있던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12일 미국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가 동영상공유 사이트 등에 올라온 김일성광장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촬영된 사진에서는 노동당사 외벽에 걸려 있던 마르크스와 레닌 초상화가 보이지 않음.
- 지난 4월15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인민군 열병식 장면을 촬영한 외신 사진에서도 두 인물의 초상화는 발견할 수 없었음.

● 北 김정은 “컴퓨터·군사교육 강화해야”(10/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혁명가’ 유자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주년에 즈음해 12일 이들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김일성·김정일혁명학원이고 선군혁명의 핵심 골간 육성기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의 이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학생들 속에서 컴퓨터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컴퓨터 실기과목의 비중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서는 인민군대 후비간부 양성 기지로서의 사명에 맞게 기초 군사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에 큰 힘을 넣어야 한”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군인기질을 체질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경제개혁에 유연 “실패해도 괜찮다”(10/14,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경제 개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함.
-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복수의 북한 경제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대해 “실패해도 무방하다. 인민으로부터 불만이 나오면 정책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노동당이 주민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黨 창건 67돌’ 즈음 10.10 0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중통·중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리용무,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오국렬, 최부일, 김경옥, 리병철, 김명식, 윤정린, 박정천, 김영철 등 당중앙군사위와 국방위,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참가
 - 라오스 총비서, 10.9 ‘당창건 67돌’ 즈음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꽃바구니 전달/駐北 외교단, 꽃바구니와 축하편지 전달/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 선물 전달/유엔아동기금 대표부 성원들, 10.9 만수대언덕 김父子 동상 참배(10.9,중통)
- 10/12, 김정은 黨 제1비서, 10.12 만경대혁명학원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돌 즈음 同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 송부(10.13,중통)
- 10/11,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 할 데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10.11 현영철·현철해 등 참가下 진행(10.11,중통)
 - 최룡해 동행,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대장), 김창섭(보위부 정치국장/상장) 등 영접
- 10/14,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47.10.12) 65돌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10.14,중통·중·평방)
 - 참가자 : 최영림, 최룡해, 김경희,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오국렬, 태종수, 리병삼, 리을설·황순희·김철만(항일빨치산 1세대), 오룡택(만경대혁명학원 원장), 주순옥(강반석혁명학원 원장) 등
 - 경축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10.13) 및 대성산혁명열사능·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10.14) 참관(10.14,중통·평방)
 - 또한 인민극장·평양교예극장·4.25문화회관에서 국립교향악단과 국립교예단, 혁명학원예술소조원들의 공연도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黨 창건’ 67돌 관련 김영남·최영림 등 黨과 국가 책임일꾼 등, 10.10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중통·중방)
 - 만수대언덕 및 전국 각지 김일성 父子 동상에 인민군·주민 등 참배(10.10,중통)
- ‘黨 창건’(10.10) 67돌 경축 모란봉악단공연(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10.11,중통·중방)
 -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김기남, 현철해, 김원홍, 김평해, 문경덕, 조연준 등

나. 경제

- **北, 배급제 폐지 실험…독립경영 외투기업 권장(10/14, 연합뉴스)**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이 14일 “북한이 이달부터 소수의 국영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과거의 명목 뿐인 저임이 아닌 월 200~300위안(3만6천~5만4천원)의 실질 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당국은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성과를 지켜본 뒤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내년에는 일부 기업의 임금을 최대 월 800위안(14만4천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함.

다. 군사

- **올 3월 김정은 시찰한 판문점 ‘통일각’ 불났다(10/12, 연합뉴스)**
 - 올해 3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찰했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북한은 통일각의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관계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일각에서 불이 났다”면서 “서부전선 일대의 북한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고 말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지난 7일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건물 1층이 1시간가량 불에 탔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김정은 시찰 北유선중앙연구소 준공(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표적 여성종합병원인 평양산원 내 유선중앙연구소 준공식이 8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는 북한 매체가 지난 7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이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고 올해 노동당 창건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될 것을 기대했다고 밝힌 곳임.

- 준공식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최태복·문경덕 당비서 등이 참석했고 최창식 보건상은 준공사에서 “유선중앙연구소는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발기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해 솟아났다”고 전함.

● 北, ‘춘향전’ 서커스로 제작해 공연(10/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립교예단의 창작가와 배우들이 춘향전을 교예극(곡예극)으로 창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춘향전은 그동안 북한에서 영화, 가극, 연극, 판소리 등으로 공연됐지만 서커스 형태로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통신은 이번 작품이 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요술 등 교예의 모든 요소를 극적으로 결합했고 “춘향과 몽룡 사이의 사랑관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봉건적 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조선 인민의 아름다운 윤리도덕을 예술적 화폭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 北 만경대·강반석혁명학원에 김정일훈장(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일 정령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혁명 유가족의 자녀와 당·정 고위 간부의 자녀에게 입학이 허용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학교임.
- 정령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노동당의 유자녀 교육방향을 높이 받들고 최고사령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웠으며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고 원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데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함.

● 北 만경대·대성산 등 놀이공원 잇따라 준공(10/9,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의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등 놀이공원이 잇달아 완공돼 노동당 창건 67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준공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들 준공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기남·문경덕 당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함.

-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만경대유희장 준공사에서 “만경대유희장은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 영도와 혁명군대의 결사관철의 정신, 애국충정이 낳은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강조함.
- **北 원격화상진료 200여개 지역 병원으로 확대(10/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내 원격화상진료 서비스가 203개 군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가 10월 발간한 소식지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소식지는 WHO와 북한 보건성이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평양산원과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9개 도의 인민병원, 203개 군 단위 병원에 대한 원격화상진료 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앙의 의료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에서는 치료하기 어렵거나 흔치 않은 증세를 원격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 조언을 할 뿐 아니라 최신 의료기술과 연구성과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밝힘.
- **北,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 ‘노력영웅’ 칭호(10/11, 조선중앙통신)**
 - 지난 8월 폐막한 제30회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이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통신은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9일 정령으로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여자유도 안금애, 남자역도 김은국(이상 4·25체육단), 여자역도 림정심(기관차체육단), 남자역도 엄윤철(압록강체육단) 등 선수 4명과 류주성 4·25체육단 유도감독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낫 등이 새겨진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보도함.

2 대외 관계

- 北中 무역 15% ↑ ..대중 의존도 심화 가속(10/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간 무역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 의존도도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북중 무역 규모는 35억4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56억2천만달러로 전년의 34억6천만달러보다 무려 62.4%나 급증했다고 전함.
 - 또한 중국 해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5만4천t의 식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北, 러시아에 과일·수산물 수출 계획(10/10, 자유아시아방송(RFA); 러시아의 소리)
 - 북한이 조만간 과일과 수산물을 러시아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러시아 연방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에 과일과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예비 합의가 이미 이뤄졌으며 수산물 중에서는 꽃게, 생선알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을 인용해 전함.
 - 이를 위해 북한 대표단이 다음 달 부라티야 자치공화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부라티야의 수도인 울란우데 시의 기업이 북한산 과일과 수산물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中 엔지·훈춘-北 나선 정기노선 버스 운행(10/10, 길림신문 등)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엔지(延吉)시와 훈춘(琿春)시,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정기노선 버스가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고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10일 보도함.
 - 신문은 이 노선을 중국 연변동북아여객운수그룹과 지린위베얼(吉林宇別爾)운수그룹, 북한 나선시육해운수총회사와 나선시관광총회사 등 북·중 4개사가 공동 개발했다고 소개함.
 - 또한, 중국 측 기업들은 대당 300만위안(5억4천만원)가량의 고급버스 11

대를 구입, 해당 노선에 투입했으며 성수기에는 1일 최다 1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獨·싱가포르 NGO, 내달 北서 나선개발 세미나(10/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독일과 싱가포르의 비정부기구(NGO)가 다음 달 북한에서 나선특구 개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과 싱가포르의 조선익스체인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북한 관료와 경제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나선특구의 도시 계획과 발전방안 마련, 국제기준에 맞는 경제적·법적 기준 정비 등을 논의하게 되며, 세미나는 나선 특구 또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함.

● **中, 백두산 北지역 연계 관광 추진(10/11, 중국신문사)**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백두산(중국명 창바이산·長白山)의 북한 지역 관광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1일 보도함.
- 신문사는 11일 창바이산관리위원회를 인용해 중국이 백두산의 북한 쪽 관광지에 현지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북·중 국경 관광객의 출국수속 관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혀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과 북한 쪽 지역을 연계한 관광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음.

● **북·중 종합박람회 단둥서 내일 개막(10/11, 연합뉴스)**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12일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개막한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랴오닝성 주최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우의·합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합작 상담 등이 진행되며, 북한에서는 100개 기업, 300명 규모의 경제무역단과 115명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이 참가한다고 전함.

- **北 중앙통신 논평 “과거청산 없이 북일관계 없다”(10/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 다른 국가에 저지른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북일관계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통신은 이날 ‘조일관계의 기본은 과거 청산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이 최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과거 청산이 없는 조일관계(북일관계)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수상(총리)을 비롯한 일본 정책들이 국제무대에서 ‘과거사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떠들면서 마치 우리 때문에 조일관계가 풀리지 않는 듯이 여론을 내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오늘 일본 반동지배층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에게는 어지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네덜란드 정부대표단, 경협 논의차 내주 방북(10/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이 경협 논의차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네덜란드 외교부와 경제부 관료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북한과 농산물 교역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기업들, 中서 상품 홍보·투자 유치 구슬땀(10/13, 연합뉴스)**
 - 13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2012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에 참가한 북한 기업들은 중국 바이어와 일반 관람객을 상대로 열린 홍보전을 펼쳤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중국과 처음 개최한 이번 종합박람회의 메인 행사인 상품전시회에 평양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100개사를 파견함.
 - 북한 기업인들은 중국 각지에서 온 바이어와 주말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회사 홍보물을 나눠주고 상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방북 日교도통신 대표단 귀국(10/13, 조선중앙통신)**

- 지난 9일 북한에 도착했던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이 13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앞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시가와 사토시(石川聰) 사장 등 교도통신 대표단을 만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납치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죄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 체제 들어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 처음으로 응한 김영남 위원장은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화선언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침”이라고 규정함.

● **北만수대예술단, 中단둥서 공연(10/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표적 예술단인 만수대예술단이 12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중국 측에서 동송근(董松根)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회장, 탄쥘전(譚作鈞) 랴오닝성 부성장,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공연을 관람했고 북한 측에서도 홍길남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훈 심양 주재 북한총영사, 최은복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 공연을 봤다고 전함.

● **올 1~8월 북미교역액 1천180만불...작년의 6배(10/14, 미국의소리(VOA))**

- 올들어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1천18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200만 달러)의 약 6배인 1천180만 달러로 나타남.
-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1천140만 달러로 전체의 96% 이상을 차지했으며 북한의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없었음.

※ 2012년 9월 기준 1달러 북한 원 환율: 6370~6500(원)

기타 (대의 일반)

- '을미사변' 117주년(1895.10.8) 관련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감행된 특대형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커녕 책임에서 한사코 벗어나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10.8,중통·노동신문/과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백년속적 일제의 죄악을 고발하는 을미사변)
-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10.9)】 '韓美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북침전쟁에 불을 지르려는 상전과 주구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며 '일본과 꾀은 물론 美 본토까지 명중타격권에 넣고 있다'고 위협(10.9,중통·중방·평방)
 - ①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 ② 南 괴뢰들이 북반부 전지역 타격을 노리고 있는 이상 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할 것, ③ 세계 모든 나라 정부, 정당, 단체들에 미국의 전횡에 경각성을 높일 것 호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새 미사일지침은 선제공격 선포” 연일 비난(10/10, 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양국 간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포함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금 괴뢰 호전광들은 북 지역의 그 어디든 ‘자유롭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췌치며(떠들며) 전쟁열에 들떠 있다”면서 “미사일 정책선언은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 선포이며 전면전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함.

-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해도 美는 할 말 없다” 위협(10/10, 연합뉴스)
 - 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온 북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한미 양국의 새 미사일 지침을 또다시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자제를 포함해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정세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와 협상의 기초를 허물었다”고 주장하며, 이어 “지금까지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제재소동을 고취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덧붙임.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10/8,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30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현재 128.3달러를 기록했으며, 2006년 68.1달러에서 2007년 71.0달러, 2008년 74.1달러, 2009년 80.3달러, 2010년 93.7달러, 지난해 109.3달러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는데 이는 최근 6년 동안 최저임금이 연 5%씩 인상되고, 북측 근로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당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 2012년 9월 기준 1달러 북한 원 환율: 6370~6500(원)

● **남북불교도, 금강산에서 합동법회 봉행(종합(10/13, 조선중앙통신)**

- 남북한 불교도가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통일기원 합동법회를 봉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신계사 복원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법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중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남북 사이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발원문을 채택함.

● **안중근의사 의거 103주년 남북공동행사 추진(10/14, 연합뉴스)**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올해 안 의사의 ‘의거 10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의 공동행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통일부에 따르면 기념사업회 측은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의 의거 10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와 안 의사의 생가인 황해도 신천 청계동 탐방 등 이른바 ‘성지순례’를 추진하고 있음.
- 기념사업회 측은 이를 위해 지난달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장재언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등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공동행사 계획을 설명하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중앙통신사 논평(10.9), 우리정부의 ‘北 위협과 도발에 강력대응’ 언급을 ‘통치위기 모면, 무장총 돌을 유발해 보수정권 연장 구실을 마련하려는 행위’라고 비난 지속(10.9,중통/위기탈출을 위한 북 도발설)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0.10), 우리의 ‘미사일정책선언’은 “우리(北)에 대한 선제공격선포이자 전면전에 불을 달려는 노골적인도발”이라며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 (10.10, 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10.10),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의 反北정책 산 증거, 무모한 선택’이라며 “우리(北)가 군사적 목적의 장거리미사일발사를 단행하여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강경대응 입장 천명(10.10, 중통·평방)
- 장거리미사일발사의 자제를 포함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협상의 기초를 허물었음.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15-10.21

10 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캄보디아 시아누크 사망에 조전(10/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병 치료 중 숨진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시아누크 전 국왕의 아들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에게 보낸 조전에서 시아누크 전 국왕이 캄보디아의 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비동맹운동(NAM) 발전에 큰 업적을 쌓았다고 전함.
 - 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아누크 대왕 폐하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결한 의리관계를 맺었고 이는 조선과 캄보디아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연대성, 협조관계의 영원한 초석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전자공업상 김재성으로 교체(10/15, 연합뉴스)**
 - 북한 내각의 전자공업상에 김재성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장이 새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개교 65주년을 기념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낸 서한을 찬양하는 전자공업상 김재성 명의의 글을 실었으며, 이 글은 “전자공업성이 지닌 임무는 매우 무겁다.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北 체육상, 리종무 축구협회위원장으로 교체(10/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내각 체육상을 박명철에서 리종무로 교체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밝힘.
 - 이 방송은 이날 평양 통일거리운동센터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체육상

을 리종무로 소개했으며, 리종무의 전임자인 박명철 전 체육상은 지난 12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제12차 인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연설을 한 뒤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음.

● 北, 새 시대정신으로 띄운 ‘생눈길 정신’(10/21,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창조하며 승리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실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신문은 사설에서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역사적 시기의 시대정신이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과감히 돌진해나가는 낙관적이며 창조적인 공격정신”이라고 소개
- 신문은 김일성 주석 시대 ‘백두혁명 정신’, ‘천리마 정신’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 ‘속도전의 혁명정신’, ‘고난의 행군 정신’ 등을 잇달아 거론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한다는 각오로 “생눈길을 헤쳐나갈 데 대해 엄숙히 선언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10/19, 김정은 黨 제1비서, 10.19 北송 비전향장기수 김동기에게 80회 ‘생일상’전달(10.19,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13), 김일성父子 동상과 창전거리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라영각·강성일 등에게 ‘노력영웅칭호’ 수여(10.17,중통)
- 상임위 정령(10.9), 낙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外 12개 단위에 ‘2중 26호모범기대영예상’ 등 수여(10.17,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황해북도 은파탄광 등 여러 부문사업 현지 요해(10.20,중통)
- 은파탄광과 사리원지질대학 및 황주군의 여러 농장들 돌아보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영농방법의 확립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강구
- 농업과학원 시험포전을 찾아 농업기계화연구소, 평양기계대학, 함흥·해주·곽산연결농기계공장,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새로 제작 및 개조한 농기계들의 기술적 특성과 작업성능 요해

나. 경제

- **北 주민 생활수준 나아진 것 없어(10/15, 뉴욕타임스(NYT))**
 -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개선된 것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신문은 북한과 중국과의 접경도시인 단둥에서 북한 주민 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평양에는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와 벤츠 승용차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류층의 삶은 더 화려해졌지만 이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식량이 부족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전함.

다. 사회·문화

- **北 평양에 통일거리운동센터 준공(10/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평양에 통일거리운동센터가 완공돼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우리의 스포츠센터와 비슷한 곳으로, 수백 개의 체육기구와 건강회복시설, 수영장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통신은 “센터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각종 운동기재와 치료설비들이 가득히 갖춰져 있다”고 묘사함.
 - 이날 준공식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등이 준공식에 참석함.
- **北서 10년간 7만7천명 재해 사망(10/17, 미국의 소리(VOA))**
 -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한 주민이 7만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IFRC가 16일 낸 ‘2012 세계재해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7만7천747명이 재해로 사망했고 이재민은 974만1천515명이었음.
 - 또한, 보고서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를 지칭하

는 ‘꽃제비’ 가운데 중국에 나와있는 수가 1998~1999년 수만 명에서 현재는 1천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北전역 유원지 건설붐…“인민행복 위한 조치” 선전(10/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공원과 유원지를 건설·개보수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함.
- 이 방송은 17일 “전국 각지에서 문화휴식터를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며 북한 전역의 공원 건설붐을 소개함.

● 지난해 북한 결핵 사망률 감소(10/18,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 사망률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WHO는 전날 발표한 ‘2012 세계 결핵통제’ 보고서에서 2011년 북한에서 결핵 사망자수는 10만 명당 6.4명으로 그 전해(7.7명)보다 줄었다고 밝힘.
- 지난해 북한의 결핵 발병자는 인구 10만 명당 345명으로 그 전해와 같았는데, 북한의 결핵 발병률은 아시아에서 동티모르와 캄보디아, 미얀마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며 지난해 북한의 전체 결핵환자 수는 9만1천433명이며 이 중 3만1천279명은 전염성 결핵환자로 나타났음.

● 北, 10월 하순 과학행사 풍성(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하순 과학기술 관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고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처장의 말을 인용해 전함.
- 18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제23차 전국 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개막됐으며 23일과 24일에는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열릴 예정임.
- 23일부터 26일 사이에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평양종합인쇄공장 등에서는 주물부문, 인쇄부문, 기계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와 현상공모 등이 열리고 24일부터 26일까지 김일성대학에서는 기초과학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임. 30일과 31일에는 평양시 평천구역 연료사업소에서 뿔감부문 과학기술현상공모가, 김책공업대학에서는 전자공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와 금속 및 공구재료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열림.

● 北, 부르주아 문화 경계…“제국주의 바람은 마약”(10/1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서구 자본주의 문화가 청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자본주의 사상 문화와 청년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부르조아(부르주아) 사상문화와 날라리풍이 절대로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 속에서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불어넣는 ‘향기로운 바람’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씹어빠진 부르조아 자유화 바람에 물젖으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변질되게 된다”고 지적했고, “극도로 안일해이하고 색정적이며 변태적인 부르조아 생활풍조는 청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이 개인의 이익과 돈 밖에 모르는 속물로 굴러떨어지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범죄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게 만든다”고 주장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中 훈춘-北 원정리 新두만강대교 내년 초 착공(10/15, 연변일보)**
 - 중국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라고 중국 연변일보가 15일 보도함.
 - 신문은 훈춘시 교통운수국을 인용해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 건설을 위한 설계탐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함.

- **中, 유엔 통한 北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10/16,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6일 WFP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FP는 중국이 기부한 자금으로 1천550t의 옥수수를 사들여 비타민과 미네랄이 보강된 영양강화 식품으로 가공해서 40만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한 달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WFP는 올해 7월부터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영양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 82개 군에서 239만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북한에 12만3천t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국적자 모잠비크서 상아 밀반출 적발(10/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프리카 동남부의 모잠비크에서 북한인이 코끼리 상아 130점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모잠비크 AIM 통신을 인용해 “북한 국적자인 김 모씨가 상아 3kg(3만6천달러 상당)을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 담아 밀반출하려다 모잠비크 마푸토 국제공항에서 지난 11일 세관에 적발됐다”고 전함.
 - 김 씨는 적발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거쳐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13만3천300달러 상당의 화폐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美구호단체, 北에 700만 달러 의약품 추가 지원(10/17, 자유아시아방송 (RFA))**

- 미국 비영리구호단체 아메리케어스(AmeriCares)가 북한 수해지역에 700만 달러(약 77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현장 조사단이 지난달 북한 홍수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북한 수재민 17만5천 명에 대한 이번 의약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아메리케어스는 앞서 7월에도 북한 수재민 1만5천 명을 위한 기초 의약품을 지원했고 지난달 추가지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힘.

● **조선총련, 산하 단체에 김일성 초상화 교체 지시(10/17, 도쿄신문)**

- 북한에 이어 일본 내 친북 단체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새로 제작한 이른바 ‘태양상’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는 최근 산하 단체와 조선학교 등에 이달 안에 사무실 벽에 거는 초상화를 바꾸라고 지시했으며, 앞서 북한도 각종 훈장이나 메달, 휘장 등에 사용되는 초상화를 일제히 교체했다고 전함.

● **北, 런던올림픽 중계권 제공 ABU에 감사편지(10/17, KBS)**

- 북한 중앙방송위원회(KRT)가 2012런던올림픽 중계권을 제공한 아시아 태평양방송연맹(ABU·회장 김인규 KBS 사장)측에 공식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KBS가 17일 밝힘.
- 자바드 모타기 ABU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63빌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BU서울총회에서 북한 KRT가 런던올림픽 중계권 제공과 관련해 ABU에 공식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고 전함.

● **北, 中 이어 대만 관광객 유치 공들여(10/17,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중국에 이어 대만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17일 대만 관광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해외 관광선전 활동을 총괄하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성규(趙成奎) 사장이 지난 11일부터 3박4일간 비공개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 주요 여행사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中 대사관원들, 북녘 들판서 가을걷이 도와(10/18, 신화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를 비롯한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17일 북녘 들판에서 가을걷이에 동참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깊어가는 가을 들녘에서 중국 대사관원들이 북한 농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땀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벼를 수확한 뒤 다과회를 갖고 정담도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며, 가을걷이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양 근교로 추정된다고 밝힘.
- **北日, 일본인 성묘용 방북 직항전세기 운항추진(10/18, 도쿄신문)**
 -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유족의 방북 성묘를 명분으로 직항 전세기 운항을 논의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18일 보도함.
 - 북한이 직항 전세기를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일본 유족단체에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시아누크 前캄보디아 국왕 애도일 선포(10/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사망한 노로돔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을 추모해 이달 23일을 애도일로 정하고 이날 지정된 장소에 조기를 달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결정에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발전과 뿔럭불가담(비동맹) 운동, 세계자주화 위업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조선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저명한 국제정치활동가 시아누크 대왕 폐하의 서거에 즈음해 10월 23일을 애도일로 했다”고 밝힘.
- **北, 유엔안보리에 ‘美위협’ 심의요청(10/18, 러시아의 소리)**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8일 보도함.

- 이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이동일 차석대사는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국의 반 북한 정책에 대한 대비책이며, 미국의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지 않는 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힘.

● **스웨덴, 올해 620만 달러 대북지원…보건의료 중점(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620만 달러의 예산으로 보건·의료 지원 등 대북 지원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은 올해 개별국가로는 최대규모인 4천100만 크로나(약 627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더스 맥슨 SIDA 대변인은 “스웨덴 정부는 2000년대 후반까지 대북 식량지원에 주력하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부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北, 대만에 아리랑 공연기간 직항편 제안(10/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매스게임 예술표현인 ‘아리랑 공연’ 기간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을 대만에 제안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의 해외 관광선전을 총괄하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성규(趙成奎) 사장은 최근 타이베이에서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힘.

● **필리핀인 北관광 내년 2월 시작(10/19, 자유아시아방송(RFA))**

- 내년 2월부터 필리핀인의 북한 관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관광·여행 전문 주간지 ‘TTG아시아’를 인용해 19일 보도함.
- TTG아시아는 필리핀의 호화관광 전문여행사인 ‘셀러브레이트 라이프’가 지난 6월부터 필리핀인의 북한 관광을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께 필리핀 관광객의 첫 북한 방문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전함.

- 이 여행사 관계자는 “일부 부유한 중국계 필리핀인들이 북한 관광을 원한다”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한 관광객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 북한이 관광용 비자를 즉시 발급해주는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 **中, 北에 공항터미널 건설 노하우 전수(10/20, 연합뉴스)**
 - 중국이 공항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북한에 전수하고 나섰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전함.
 - 20일 중국민용항공 동북지구관리국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북한 민항중국 안재원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 6명은 지난 1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타오셴(桃仙)국제공항 방문함.
 - 민항중국 관계자와 백두산건축설계원의 설계사 등으로 구성된 북측 대표단은 현재 제3터미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타오셴공항을 시찰하고 중국측 전문가들로부터 터미널 내장재와 석재 가격을 비롯해 지붕 두께, 지하 방수처리, 제조업체 납품과정 등 터미널 건설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들음.
- **北노동당, 이란 이슬람연합당과 교류(10/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가 하미드 레자 타라기 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이란 이슬람연합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전함.
 -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란 이슬람연합당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북측에서는 김영일 비서 등이, 이란 측에서는 타라기 부대표와 알리레자 가니마트푸르 북한 주재 이란 임시대리 대사 등이 참석함.
- **中 “남·북한 자제해야”(10/20,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남북) 당사국들이 도발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반도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사태는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 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함.

기타 (대의 일반)

- 北대표, 10.15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1위원회 회의(군축위원회) 연설을 통해 '핵군축이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초미의 문제'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北)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10.18,중통·중방)
- '우리(北)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평화적인 우주 및 핵에너지 개발과 이용도 계속 추진할 것임.'

나. 6자회담(북핵)

● 데이비스 “北변화 흥미..실질적변화 수반 주시”(10/19,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일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미국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착수라는 점을 지적한 뒤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현재로서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최근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공격적인 태도와 관련, ‘매우 문제있는 (very troubling)’ 신호라고 비판했으며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유신 선포일에 박근혜 후보 비난(종합)(10/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 40년이 되는 17일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후보를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독재부활은 역사와 인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논평을 내고 “5·16쿠데타와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역사적 선택’이었다고 비호해나섰던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유신에 대해) 최근에는 북의 ‘남침 위협’을 막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해 나섰다”며 “파렴치성에 만사람이 경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이것은 저들이 집권하면 유신독재시기처럼 파쇼적 탄압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던 ‘남침 위협’과 ‘북도발설’에 계속 매달리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나 같다”며 “유신독재자의 파쇼통치로 당시 피해를 본 것은 남조선인민들”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힘.

- 北, 유엔 연설서 유엔사 해체 촉구(10/17, 조선중앙통신)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가 주한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를 조속히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 회의에서 ‘유엔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안건으로 토의할 때 연설을 통해 “남조선 주둔 유엔사는 개별 국가에 의한 유엔 도용의 전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개별 국가에 의해 유엔이 도용된 역사에 중지부를 찍는 것은 유엔헌장 및 기구 역할 강화의 선행공정으로 된다”며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유엔은 미국에 의해 자기의 이름이 도용당한 수치를 털어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함.

● 北 “‘빠라살포’ 임진각에 군사적 타격” 위협(종합)(10/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빠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통신은 북한 인민군 서부전선사령부가 이날 ‘공개통고장’을 통해 “빠라살포지점은 그대로 둘 수 없는 도발원점이며 우리가 그 즉시 청산 해버려야 할 물리적 타격 목표”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함.
- 서부전선사령부는 이어 “지금 이 시각부터 괴뢰들의 빠라살포지점으로 공개된 파주시 임진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대의 직접적인 조준격파사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라살포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이며 그것은 곧 정전협정에 대한 파기행위이고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도발”이라고 비난함.

● 北 국방위 “서해엔 우리가 설정한 분계선만 존재”(종합)(10/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8일 연평도 방문을 비난하며 “조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조선 서해에는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정책국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대결과 충돌의 화근인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가로막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보려는 어리석은 기도(시도)의 발로”라고 비난함.
- 이어 “현시기 북방한계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가 아니면 대결과 전쟁을 바라는가를 가르는 척도”라며 “이명박 역도는 괴뢰 군부호전광들을 북방한계선 고수로 내몰아 동족대결을 극대화하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트려 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일방과세.. 퇴직금 요구도(종합2보)(10/1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힘.

- **北, 개성공단 8개사에 총16만弗 과세 일방적 통보(10/19,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8개사가 북측으로부터 총 16만 달러의 일방적 과세 통보를 받은 것으로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관련 당국과 입주기업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곳은 8개사, 과세 총액은 16만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함.

기타 (대남)

- 우리 「합참」 의장의 對北언급(10.8, 북의 핵사용 임박징후 포착되면 즉시 선제타격 가능 등)을 “북침전쟁도발 광증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우리(北)는 호전광무리에게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10.16,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광의 단말마적인 전쟁광증)
- 【조평통 대변인 담화】 국방부가 ‘중복실체 표준교안’ 교재를 軍에 하달한 것 관련,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극악한 탄압음모’라며 ‘연북통일기운이 군부 내부까지 파급되는 것을 막고 대선을 통해 보수정권을 연장시켜보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10.18,중통·중방)
- 「北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10.19)」, 南 탈북자단체의 對北 전단지 살포계획(10.22, 임진각 주변) 발표에 대해 “빠라살포 움직임 포착 즉시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 위협(10.19,중통·중·평방)
 - ① 지금 이 시각부터 괴뢰들의 빠라살포지점으로 공개된 파주시 임진각과 그 주변은 우리 군대의 직접적인 조준격파 사격대상으로 될 것임.
 - ② 임진각과 그 주변에서 사소한 빠라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서부전선의 경고 없는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임.
 - ③ 임진각과 그 주변의 남조선 주민들은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견하여 미리 대피할 데 대하여 알림.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2-10.28

10 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내각회의 열어 경제건설 집중 논의(10/22, 인민일보)

- 북한이 최근 내각 회의를 열어 4분기 경제건설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22일 보도함.
-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각 회의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3분기 경제를 결산하고 4분기 경제건설 목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4분기가 올해 경제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계속해서 전력과 석탄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 불발탄 처리중 사망 인민보안원에 ‘영웅’칭호(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한국전쟁 때 미군이 투하했던 폭탄을 처리하던 중 폭발사고로 사망한 인민보안국 보안원 두 명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강원도 인민보안국 소속 김금수, 한병남이 지난 20일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가 떨어뜨린 시한폭탄을 처리하던 중 뜻밖에 폭탄이 터지는 순간 동지들을 구원하고 시신도 못 남긴 채 장렬하게 희생됐다”며 “이들에 대한 공화국영웅 칭호 수여식이 27일 원산에서 열렸다”고 전함.

기타 (대내 정치)

- 北, 최영림(총리)·전승훈(부총리, 보고) 등 참가下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10.22,중통)
 - 회의에서는 3-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총화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총돌격전을 벌여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데 대한 문제 토의
 - 올해의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결정적 시기인 4-4분기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지적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내각결정 심의체택
- 김일성 父子 형상 모자이크 영상작품(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리) 준공식, 10.23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진행(10.23,중방·평방)

- 문경덕(평양시당책, 준공사)·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
-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 생산실태 현지 요해(10.25,중통·중방)
 - 이에 앞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시공일정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했음.
- 제23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폐막식, 10.25 최태복(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김승두(교육총 위원장)·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下 진행(10.25,중통·중방)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52.10.28) 60돌 기념보고회, 10.28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및 ‘김일성훈장·김정일훈장·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10.28,중방·중통)
 -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오극렬, 려춘석(김일성군사종합 대학 총장, 기념보고) 등 참석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 기념연회, 10.28 김정각,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오극렬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0.28,중통·중방)
 -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계기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원 → 김정일군사연구원’으로 명명(黨 군사총 명령) 모임, 10.28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현철해 등 참가下 진행(10.29,중통·중방)

나. 사회문화

● 올 1~9월 北주민 취업 방중 6만명…전년비 11%↑(10/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업 목적으로 중국을 합법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6만1천100명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함.
-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 목적으로 방중한 인원(5만5천명) 보다 11% 증가한 것이며, 올해 들어 중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가 그만큼 증가한 셈이라고 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은 22일 발표한 ‘2012년 1~9월 외국인 입국 현황’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북한 주민은 13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명)에 비해 20.9% 증가했다고 밝힘.

● 北 금수산태양궁전 앞 대규모 공원 조성(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이 방송은 정통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금수산태양궁전 앞에서 넓은 광장의 콘크리트 바닥을 모두 뒤엎어 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인 ‘지오아이’가 제공한 위성사진에서도 평양 중심의 대규모 공사 현장이 확인된다고 밝힘.
- 미국의 위성사진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씨는 RFA에 “금수산태양궁전 앞 콘크리트 광장의 60%(5만7천㎡)가 대형공원으로 바뀌고 있고 궁전 주변에 공사 잔해물이 있는 것을 볼 때 내부에서도 중요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北노동신문 “자연재해로 올해 농업에 적잖은 지장”(10/24, 노동신문)

- 북한은 올해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농업생산에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봤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밝힘.
- 신문은 이날 ‘한해 농사의 결실과 과학기술적 총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우리나라 농촌들에서는 혹심한 가뭄(가뭄)과 큰물(홍수), 태풍 피해로 농업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고 전함.
- 또한, 신문은 “기상조건과 종자, 지력, 기계수단, 영농물자 보장 등에 대한 정확한 타산(계산)과 노력조직, 회계 업무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농업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농업부문 일꾼과 기술자들이 내년도 농사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고려항공, 인터넷 예약서비스 개시(10/24, 연합뉴스)

-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과 발권 업무를 하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고려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지난 8월7일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했으며 “고려항공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비행기 좌석 예약과 전자비행기표(전자티켓) 발급봉사를 제공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모교’ 김일성군사종합대에 김정일훈장(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김정일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창립 60돌을 맞으며 김정일훈장이 수여됐다”며 “대학은 대학 안에 김정은 동지의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교육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렸으며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여 주체전법으로 현대전을 능숙히 조직지휘할 수 있는 군사지휘관들을 키워냈다”고 소개함.

● **北 22호 정치범수용소 폐쇄 안돼(10/24, 연합뉴스)**

- 북한 북부지역의 대표적 정치범 수용소인 ‘22호 관리소’가 지난 6월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4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수습장을 제시하며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HRNK는 지난 11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2010년 11월 및 2011년 5월의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22호 관리소가 올해 폐쇄되거나 해체됐다는 보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함.

● **평양시 인기 1위 호텔은 고려호텔(10/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을 찾았던 여행객들이 평양시내 최고의 호텔로 고려호텔을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문 여행정보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이 웹사이트가 북한에 살았거나 북한을 여행해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 외국인 등으로부터 평양시 호텔에 대한 이용소감 등을 조사한 결과 고려호텔이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았다고 전함.
- 이어 양각도호텔, 보통강호텔, 해방산호텔, 양강호텔, 평양호텔, 서산호텔이 순서대로 2~7위를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유스호텔(Youth Hotel)이었음.

● **北 새 태블릿PC, 中 제품과 ‘판박이’(10/26, 엔케이뉴스)**

- 26일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엔케이뉴스’(www.nknews.org)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TV는 최근 방송에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새 태블릿 PC를 공개함.

- 중앙TV는 이 제품에 대해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다”며 “국가의 과학기술 보급, 문화·교육프로젝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함.
- 또 북한당국이 최근 11년제 학제를 12년제로 바꾸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학생들이 ‘조선글사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해 키보드나 전자펜으로 글을 입력할 수 있고 독특한 모양과 다양한 색의 폰트로 풍부한 감수성도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함.

● 北 새로 제정한 ‘어머니날’은 11월16일(10/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북한의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어머니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새 우표(개별우표 1종)를 내놨다”고 전하며 지난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으로 11월16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다고 밝힘.
- 11월16일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날임.

2 대외 관계

가. 일반

● WHO, 北보건성에 의약품 기증(10/23, 조선중앙통신)

-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 북한 내각 보건성에 의약품을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 이날 평양에서 열린 의약품 기증식에는 북한 측에서 김형훈 보건성 부상 등이 참석했으며 요나스 테겐 월드마리아姆 북한 주재 WHO 대표와 세계 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평양 대표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힘.

● 中 연변서 ‘북한영화주간’ 개막(10/24, 중국 신문사)

-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영화들을 일반에 소개하는 ‘북한영화주간’ 행사가 23일 개막했다고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4일 보도함.
- 이번 행사는 중국 지린성과 연변주, 북한 조선영화수출입회사 공동 주최로 오는 27일까지 열리며, 개막식에는 연변주 민광도 부주장과 조선영화수출입회사 오형철 회장, 북한의 유명 배우 리영호, 극작가 김은옥 등이 참석해 문화 교류, 합작을 통해 북·중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함.

● 北·베트남, 농업부문 협력 확대 추진(10/25, 베트남통신(VNA))

- 북한과 베트남이 농업발전 경험을 공유키로 하는 등 농업부문 협력을 확대한다고 베트남통신(VNA)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리명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대표단이 전날 하노이에서 하 티 키에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서기와 만나 환담했다고 전함.
- 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이 공산당 주도로 이뤄진 개혁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힘.

● **駐북한 중국대사, 함경남도 공업시설 시찰(10/25, 연합뉴스)**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가 최근 북한경제 발전의 ‘모범지역’으로 꼽히는 함경남도를 찾아 대표적인 공업시설들을 둘러봤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대사는 지난 18~19일 일부 대사관 직원들과 함경남도를 찾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함주군동봉합작농장 등을 시찰했음.
-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 화학비료공장으로 2014년까지 생산능력을 2배로 늘리는 증설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중장비 등을 만드는 기계제작공장임.

● **北 유엔대표 “실용위성 계속 발사할 것”(10/25, 조선중앙방송)**

-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우주개발을 위한 자주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강성국가 건설에 필요한 실용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지난 19일 유엔총회 제67차 회의 제3위원회 의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안건 토의 연설에서 “우리의 우주개발 노력은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 행사인 동시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르는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같이 밝힘.
- 북한 대표는 “일부 나라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우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 위성도 쏘아 올리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모든 나라에 평등하고 차별 없는 주권을 보장하며 선진과학기술의 보급 및 호상협조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고 강조했고 “우주군사화와 함께 우주기술협조의 정치화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 **北, 올 상반기 스위스 총기류 17만弗 어치 수입(10/26,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상반기 스위스로부터 17만 달러어치가 넘는 총기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함.
- 코트라가 스위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 스위스에서 권총, 소총 등 총기류 17만4천 달러 어치를 수입했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기용 산탄총과 소총 등 폭약점화장치가 4만4천달러 어치로 가장 많고 공기총, 가스총 등이 3만4천달러, 리볼버 및 피스톨식 권총이 2만1천달러어치를 기록했으며, 격발장치, 피스톤 등 총기 부품은 7만5천달러어치로 파악됐다고 밝힘.

● 北 평안북도-中 랴오닝성 교류 활발(10/26, 요녕일보(遼寧日報))

- 북한과 중국 접경인 평안북도와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여 주목된다고 요녕일보(遼寧日報)가 2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최종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친선대표단은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을 방문해 천정가오(陳政高) 성장을 접견했음.
- 천 성장은 이 자리에서 “랴오닝성은 역대로 평안북도와와의 친선·협작관계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신압록강대교(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황금평·위화도 공동 개발·관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이번 최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촉진해 더 빠르고 좋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으며,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랴오닝성과 평안북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황금평·위화도 개발·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중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고 전함.

● 北-中, 나선특구 관리위 청사 착공(10/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나선 특구의 관리위원회 청사 착공식이 26일 현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착공식에는 북측에서 조정호 나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중국 측에서 장안순(張安順) 지린성 연변주당 서기, 전보진 청진주재 중국 총영사 등이 참석함.
-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착공식에서 “조중 두 나라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나선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진위근 중국 지린성 부성장은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것은 중조 나선경제무역지대 협조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힘.

● 北, 일본 언론에 나선특구 공개(10/27, 연합뉴스)

-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언론에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나선경제특구를 공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사들은 25일 나선특구의 나진항과 수산물 가공업체, 5성급 호텔 등을 방문했으며 나선시 인민위원회 관계자는 나선시와 중국 국경지역을 잇는 도로가 완성됐고 항만설비 등 기반시설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개발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함.

● 中, 北 나선특구에 전력 공급 가시화(10/27, 중국광파망(廣播網))

- 중국라디오방송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廣播網)은 나선특구 송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보고서가 중국국가전력망공사(SGCC)의 기초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보도함.
- 이 사업은 북·중 접경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에서 나선특구까지 66kV의 송전선로 97.8km를 설치하고 나선시에 변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공기업인 SGCC는 베이징경제기술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투입해 나선특구 송전사업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보완·개선작업을 거쳐 사업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기타 (대의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자위대 헬기 독도상공 불법침입(9월) 및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 관련 ‘日 반동들이 독도강탈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군사적 방법으로 강탈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침략행위, 날강도행위’라고 비난(10.23,중통/위험천만한 독도침략기도)
- 北 외무성 대변인, 10.25 중통 문답을 통해 美 국무부 對北정책 특별대표(글린 데이비스)의 對北 촉구(北 위협적 행동 중단 등) 관련 “미국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北)보고만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10.25,중통·중방)
- 미국의 협상자가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경위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음.

나.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美 대북정책 대표 망발” 비난(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5일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최근 동북아순방 기간 발언에 대해 “우리를 걸고 드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며칠 전 글린 데이비스가 우리 주변(동북아)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이 ‘9·19공동성명을 파기하면 큰 잘못이며 자기의 의무이행에 나서야 한다’느니 따위의 분수없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미국이 9·19성명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우리보고만 이행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함.
-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 제재를 노골적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며 “미국의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은 우리가 핵 억제력을 더욱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데로 떠밀었다”고 주장함.
- 또한, 그는 “사실상 도발은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유치한 반공화국 뼈라살포놀음에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일삼고 있다”며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맞서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매체 “빠라 살포는 南정부의 북풍 조작”(10/2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남한 정부의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새로운 북풍 조작을 노린 호전적 객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행하려는 반공화국 빠라살포 놀음은 결국 충격적인 사건을 도발해 ‘북풍’ 조작에 써먹으려는 보수 당국에 의해 직접 고안됐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전단지 살포에 대해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주도 밑에 벌어지는 계획적인 반공화국 도발이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며 북한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국방부의 종북교재 제작, 지난 20~21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승조 합동의장의 전방부대 방문 등도 ‘북풍’을 조작하는 시도로 거론하고 “지금 북남관계 악화가 보수세력의 재집권에 유리하다고 보는 괴뢰 군부세력들은 안보 선풍을 일으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함.

나. 경제·사회·문화

- 올 입국 탈북자 7년만에 최저 전망(10/27, 연합뉴스)
 - 지난 9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1천 명 수준에 그쳐 올해 입국하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가 7년 만에 1천명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8일 통일부가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9월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남성 303명, 여성 783명 등 총 1천86명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입국자는 120여 명으로 10~12월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해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1천440명 정도로 2005년(1천382명)과 비슷한 수준이 됨.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미사일정책 선언(10.7)' 관련 '공화국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지배주의적 야망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억제력 백방으로 강화' 위협(10.23, 중통·노동신문·평방/침략자들은 미사일 세례를 피할 수 없다)
- 「범청학련」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10.22)을 통해 국방부의 '범청학련' 남측본부 등 '중북실체표준교안' 이적단체 규정 관련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파쇼 폭압행위"라며 '심판투쟁' 선동(10.22, 중통·중방)
- '중북실체표준교안'은 "통일진보세력을 북에 추종하는 이적세력으로 규정하였다"면서 "군부가 민간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광주인민봉기 탄압이후 처음"이라고 왜곡 선동(10.22, 중통·노동신문·평방/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사태)
- 訪韓 美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對北정책협의(10.19, 서울) 및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3자 고위급 협의'(10.17, 도쿄)에서의 '對北공조방침' 재확인 관련 '이○○역도는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살길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10.23, 중통·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0.29-10.31

10 월

5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석상 등장(종합)(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름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맞아 이 학교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밝힘.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동상 제막식장에 나오자 “(제막식) 전체 참가자들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다”고 전함.

- **北 리설주 재등장…‘부부동반’ 행보 재개(종합)(10/30, 조선중앙통신)**
 -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50여 일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통신은 지난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기념해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에 리설주가 남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쿠바에 허리케인 피해 위로 전문(10/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허리케인 ‘샌디(Sandy)’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나는 최근 귀국(쿠바)의 동부 주들이 태풍으로 인해 인명 피해와 많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해 쿠바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나는 당신의 영도 밑에 쿠바 당과 정부와 인민이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임.

● 北 내각 금속공업상도 교체(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체제 들어 내각의 주요인사들이 속속 교체되고 있는데 내각의 금속공업상도 교체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함경북도에 있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열간압연공정의 현대화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관련 시설 준공식에 한효연 금속공업상이 참석해 준공사를 했다고 보도함.

■ 기타 (대내 정치)

- 김영일(黨비서), 10.29 체하-모라바공산당 대표단과 담화 및 체하-모라바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보내는 선물 접수(10.29, 중통·중방)
- 최룡해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요해(10.30,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 요해(10.31, 중통·평방)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열간압연공정 현대화 준공식, 10.31 한효연(금속공업상)·오수용(咸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 진행(10.31,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경공업부문 과학화·현대화 추진” 선전(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의 과학화·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선전하며 여러 생산단위의 성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29일 ‘경공업 발전을 추동하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경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열의 속에 이 부문에서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이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여 전반적 생산공정에 대한 통합자동화 체계를 실현했다”고 덧붙임.

다. 군사

- 北, 10년만에 軍 청년동맹 초급간부대회 개최(10/31, 조선중앙통신 등)
 - 북한에서 군대 내 청년동맹 초급간부대회가 10년 만에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가 3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인민군 중대 청년동맹 초급단체위원장 대회가 31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엄향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인민무력부 일꾼 등이 대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라. 사회·문화

- 北 “민물고기 양식 과학화 성과” 선전(10/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민물고기 양식사업의 과학화로 민물고기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선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평양시 삼석종어(치어)사업소는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새끼 물고기의 사름률(생존율)을 3배로 높였고, 황해북도 연탄 종어사업소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알깨우기장(부화장)을 꾸려놓고 그 실수률(부화율)을 올리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평양에 있는 대동강자라공장에서 양식장 소독과 수질검사 등 양식에 필요한 조건을 빈틈없이 갖춰 성장률을 높이고 있고, 평안북도 염주청년양어장과 룡천종어사업소 등에서는 ‘룡정어(가죽 잉어)’를 잘 부화시켜 시·군 종어사업소와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양어장에 많이 보내줬다고 소개함.

2 대외 관계

● 北 김일성대, 中 지린대와 교류 강화(10/30, 연합뉴스)

-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중국 동북 지역의 명문 국립대인 지린(吉林)대학과 인재, 학술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나섰다고 지린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함.
- 30일 지린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일성대 당위원회 김태희 서기를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은 지난 23~28일 지린성 창춘(長春)에 있는 지린대를 방문해 토론회와 교내 시찰, 양 대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함.
- 지린대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 대학이 과학 연구와 학술 교류, 교원 상호 방문, 대학원생 양성 등의 협력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英, 작년 대북 유엔긴급기금 22% 지원(10/31,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에 지원된 유엔의 중앙긴급구호기금중 22%를 영국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영국 상원의 린지 노스오버 국제개발 담당 대변인을 인용해 31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2천500만 달러, 올 3월 추가로 1천1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바 있음.
- 노스오버 대변인은 북한이 거주지역, 출신성분 등을 기준으로 주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국은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이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노동신문, 美위안부기림비 거론하며 日 비난(10/31, 노동신문)

- 북한이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를 거론하며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함.
- 신문은 31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일본의 둘도 없는 동맹국인 미국 땅에 일제의 성 노예 죄행을 고발하는 비석이 연이어 세워지는 것은 과거 범죄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함.

- 또한 “얼마 전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주의 한 도시에서 과거 일본군 성 노예 범죄와 관련한 비석을 세울 데 대한 문제가 결정됐다”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각 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10.30), 日 자민당 총재(아베 신조)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군국주의 재침야망에 환장한 망동, 극우세력이 활개칠수록 일본의 전도는 더욱 암담해 질 것’이라고 비난(10.30,중통/군국주의 광신자들이 활개치는 일본)
- 美 국무성 부장관 ‘번즈’의 對北발언(핵야욕과 미사일계획이 동북아시아역 안정과 평화에 위협 등) 관련 ‘우리(北)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11.1,중통·노동신문·평방/호전세력의 황당무계한 위협타령)

3 대남 동향

● ‘일방 과세’ 北, “기업들 이해시켜라” 압박(10/30,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일방적 과세를 고수하면서 오히려 남측이 기업들을 설득해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30일 전함.
-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세금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해 “기업들에 설명을 잘해라. 이해를 잘 시켜라”고 요구했다고 밝힘.

기타 (대남)

- 통일부장관의 訪中(10.28~30) 對北 발언(10.29, 北이 변화를 위한 용기를 내기 바란다 등)에 대해 “주제넘은 낚두리로 단호히 타매한다”고 신랄히 비난(10.31,중통 논평/하수인의 뽀수없는 나발)

9·10월

북한동향 일지

<9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9/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 시찰
9/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맞이식당 시찰
9/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대동강타일공장 현지지도
9/2,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조선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 연주회 지도
9/3,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조선인민군 군악대 연주회 지도
9/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황해북도 양로원과 육아원·애육원들에 '식료품과 의약품'을 선물로 전달
9/4, 중통·중방	김영남, 불룩불가담(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및 이란 공식친선방문 후 귀국
9/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원산농업종합대학 박사 김우범과 봉화화학공장 지배인 신재완에게 80·90돌 '생일상' 각각 전달
9/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전승기념관' 건설 명령(전승 60돌인 '13.7.27까지 완료)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최룡해·김정각 등 참가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승리상 앞에서 진행
9/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故 문선명(통일교 총재, 9.3 사망) 유가족에게 화환 전달
9/7, 중통·중방	北(김완수 서기국장) -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단 회담, 평양에서 개최
9/7, 중통·중방	김영남, 이탈리아 국회 하원 자유인민당그룹 부위원장 및 일행과 담화
9/7, 중통·중방	김영일(黨 비서), '이노키 간지'(이노키게놈연합주식회사 회장) 및 일행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9/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민속공원 시찰 및 공원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최고사령관 감사' 전달
9/8,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통일거리운동센터(김정은 직접 발기·구상, 연건축면적 : 1만3,749㎡) 현지지도
9/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0시 黨중앙군사위·국방위·최고사령부 작전지휘부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父子에게 경의표시
9/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정권 창건 64돌 즈음 조선인민군협주단 종합공연 관람
9/10, 중통·중방	김영남, 쿠바 혁명무력 군사대표단과 담화
9/10, 중통·중방	김영남,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9/10, 중통·중방	김영일(黨 비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선전교양총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9/10, 중통·중방	최태복(黨 비서), 제8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참가團 및 해외동포 대표 단장들과 담화
9/11,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함경남도 검덕지구 수해복구 상황 현지에서 요해
9/13,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게 충실성을 지닌 김명복(평남정보기술교류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

보도일자	내용
9/14, 중통	김정은, 비전향장기수 '박문재'의 90번째 생일상 전달
9/1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 건설에 이바지한 경흥지도국 처장 김형애 등에게 '감사' 전달
9/17,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9.16 평양시민들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및 출연자·창작가들에게 「감사」 전달
9/17, 중통·중방	최영림(내각총리), 함경북도 회령시의 공장·기업소 등과 나선경제무역지대를 방문하여 '요해사업' 진행
9/18,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9/18, 중통	김영남, 駐北 아랍에미리트 대사 신임장 접수 및 담화
9/19, 중통	박의춘(외무상), 駐北 아랍에미리트연방(UAE)·뉴질랜드 新任 대사와 각각 담화
9/20, 중통·중방	최영림(내각총리), '흥남비료·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9/21,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현지지도
9/24, 중통	김영일(黨비서), 터키 노동당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9/2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함옥란 100세 노인에게 '생일상' 전달
9/26, 중통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中 국가라디오영화TV총국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9/28, 중통·중방	北 노동당, 김영일(黨 비서) 등 참가下 태국을 위한 당대표단 위해 연회 개최
9/28, 중통·중방	김영남, 離任 駐北 영국 대사와 담화
9/28, 중통	박의춘(외무상), 新任 駐北 쿠웨이트 대사와 담화
9/29,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남포혁명학원 등 남포시 각급 학원들에 '감 선물'
9/29,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대학습당에 많은 도서들과 자료들 전달
9/29, 중통·중방·평방	최영림(내각총리), 평성합성가죽공장 및 평양항공역 2항공역사 건설정형 현지 요해
9/30,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현지말씀' 관철 평양남새과학연구소·평양화초연구소 종업원 께기모임, 9.29 현지에서 각각 진행

<10월 일자>

보도일자	내용
10/1, 중통·중방	김정은(黨 제1비서)·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족 위원장)·최영림(내각 총리), 9.30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우방귀(吳邦國, 全人代 상무위원장)·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에게 '중국 정권 수립' 63주년 축전
10/1, 중통·중방	김영남, 태국을 위한 당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10/2, 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중앙동물원에 120종의 관상용 비둘기들과 가금류들을 전달
10/2, 중통·평방	김영남, 駐北 스웨덴 신임대사 '칼 울로프 안데르손'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
10/3, 중통	박의춘 외무상과 피지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상 사이 회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10/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13일과 27일 단천지구광업총국 등 여러단위 일꾼·근로자·교직원·학생들에게 '친필' 전달
10/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80회 생일을 맞은 김용수(비전향장기수)에게 생일상 전달
10/6, 중통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일(1997.10.8)을 맞으며 '김정일의 조선노동당 강화발전 업적 선전 및 김정은에 의해 계승 발전' 강조
10/6, 중통	최룡해 총정치국장, 만경대유회장·통일거리운동센터 등 평양시 여러 대상 건설 정형 현지요해
10/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세워진 김정일 동상 및 만경대유회장과 대성산유회장 시찰
10/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축전
10/7, 중통·중방·평방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97.10.8) 15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10.7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개최
10/7,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 생산시험장과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 현지 요해
10/8,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희조(강원도 천내군 로운리)·전문진(항일혁명투사)'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
10/8, 중통·중방·평방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준공식, 최영림·최태복·문경덕·최창식(보건상/준공사) 등 참가下 진행
10/9, 중통	박의춘 외무상, 나이지리아 정부 대표단과 담화
10/1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黨 창건 67돌' 즈음 0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0/10, 중통·중방	黨 창건' 67돌 관련 김영남·최영림 등 黨과 국가 책임일꾼 등,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10/10, 중통·평방	김영남, 나이지리아 정부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10/11, 중통·중방	'黨 창건'(10.10) 67돌 경축 모란봉악단공연(향도의 당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 10.10 김정은 黨 제1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10/1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시(보통강바닥파기와 호안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 할 데 대하여를 관찰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현영철·현철해 등 참가下 진행
10/12, 중통	김영남 상임위원장, 日 교도통신사 대표단과 담화

보도일자	내용
10/12, 중통	김영일(黨비서),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 국제비서 '모리스 꾸끼 에르만'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
10/13,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10.12 만경대혁명학원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65돌 즈음 同 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서한 송부
10/14,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 및 강반석혁명학원 창립(47.10.12) 65돌 경축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10/14, 중통·중방	최영림(내각총리), 평양 보통강 정리공사 정형 현지요해
10/1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캄보디아 前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 사망 관련 조전
10/16, 중통·중방	김영남·최영림·최태복·리철만·박의춘·리룡남·김진범·리영길 등, 駐北 캄보디아 대사관에 최고인민회의·내각·무역성 등 名義 化환(캄보디아 前 국왕 사망 관련) 전달 弔意 방문
10/16, 중통·평방	北 노동당(김영일 黨 비서) - 이탈리아 민주당 대표단 회담, 평양에서 진행
10/16, 중통	박의춘(외무상),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환담
10/17, 중통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탈리아 민주당 대표단과 담화
10/17, 중통	박의춘(외무상), 新任 스위스 대사 및 離任 방글라데시 대사와 각각 담화
10/18, 중통·중방	김영남, 駐北 스위스 신임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
10/18, 중통·중방	김영일, 駐北 스웨덴 신임 대사칼 엘로프 안데르손과 담화
10/19,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北送 비전향장기수 김동기에게 80회 '생일상'전달
10/19, 중통·평방	김영남, 離任 駐北 방글라데시 대사와 환담
10/20, 중통	최영림(내각 총리), 황해북도 은파탄광 등 여러 부문사업 현지 요해
10/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만수대창작사 대동강돌가공사업소 등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10/22, 중통	北, 최영림(총리)·전승훈(부총리, 보고) 등 참가下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10/25,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황해제철연합기업소 생산실태 현지 요해
10/2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교직원들과 기념촬영
10/29, 중통·중방	김영일(黨비서), 체히-모라바공산당 대표단과 담화 및 체히 - 모라바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이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보내는 선물 접수
10/30, 중통·중방	김정은·리설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60돌기념 모란봉악단공연 관람
10/30, 중통·중방	김정은·리설주, 평양시민들과 제12차 인민체육대회 체육단부문 4.25팀과 선봉팀의 남자축구 결승경기 관람 및 제30차 올림픽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 기념촬영
10/30,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쿠바 공산당 제1비서(라울 카스트로)에게 태풍피해 관련 위로 전문
10/30, 중통	최룡해 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정형 현지요해
10/30, 중통	박의춘 외무상, 訪北 시리아 정부경제대표단과 담화
10/3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故 리도익(김일성상계관이며 인민예술가인 前 백두산창작단 미술가) 빈소에 화환 전달
10/31, 중통·평방	최영림 내각총리, 김책공업종합대학 현지 요해